朝鮮日報 夕刊 三日(日) 本紙夕刊十二面

社說
朝鮮語隨意科問題

一

今春 多數한 中等學校에서 朝鮮語를 敎授치 아니하게 되매 對하야 社會一般에서 적지아니한 關心과 注意를 가지고 잇던中 再昨九月三十日 市內 孝悌公立尋常小學校에서 在學兒童保護者에게 從來 必須科이던 朝鮮語科를 隨意科로 變更하야 希望者에게만 朝鮮語를 敎授하고 其他는 敎授치 아니할것을 前提로하야 希望과 不希望을 回答하라고 通知하여서 敎育界와 및 一般學父兄에게 또다시 關心과 注目을 잇글게되엿다 이 朝鮮語科의 隨意科問題는 자칫하면 民族意識問題나 또는 그 類似問題로 曲釋되기 쉬운때문에 問題를 解剖分釋하여서 論評을 加하기가 極히 困難한感이 업지안타 그러나 吾人이 考究하고저 하는것은 決코 그것이 아닌것을 먼저 言明하여둔다。

二

總督府爲政首腦部의 이朝鮮語科에 對한方針은 今春에 學務局長이 累次 言明한바와 및定例面會日에 一部面會者等이 朝鮮語敎授廢止를 要請함에 對하야 南總督이 一言으로 拒斥한 事實로만 보아도 잘알수잇는바로 다시重復言及할 必要도 업는바이다。또 新敎育令도 內鮮一體를 目標로 普通과 普通을 一元化하여서 敎育上 形式과內容을 劃一的制度로 만드럿스므로 그根本精神에 비추어 보면 朝鮮語科는 當然 廢止하여야만 될것이다 그러메도 不拘하고 朝鮮語科는 必須로 하던지 隨意로하던지 自由裁量에맷기는 條項을 設定한것은 現實朝鮮의 特殊事情을 參酌한 深謀遠慮에서 나온 立法精神의發現이라고 아니할수가 업다 그러므로 吾人은 爲政當局의 賢明한 政策에 對하야 贊成과 敬意를 表하는 바이다。

三

爲政當局의 意思와方針이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下級敎務에 當한·敎職者中에는 被敎育者가 敎育을 바듬으로 國民生活上便益을 엇게하는 敎育의 根本精神을 沒却하고 朝鮮語科를 廢止하는것으로써 自己의 敎育上功績을 낫타내는것으로 曲解한다면은 안될일이다。只今 朝鮮內 國語普及狀況을 보기爲하야 昨年末 統計를 보자 國語를 解得하는 朝鮮人男女는 二百二十九萬七千三百九十八人으로 總數千二百에對하야 一〇、五七의 比率이엿다 이것을 二十五年前인 大正二年末의 六、〇八에比하여보면 比率의 增加가 實로 十九倍에 達한다 그러나 五人一家族의 單位로 보면 아즉도 國語를 아는사람이 업는 家庭이 全家庭의 半數以上을 占領하고 잇다 더욱히 都會地보담 農村에는 한사람도 國語를 모르는 家庭이 三分二以上에達하는 現狀이다。

四

이것이 社會의實狀임으로 被敎育者가 朝鮮語를 배우지못하면 敎育을 바든後에 自己家族과는 信書한장相通하지 못하게 될것이니 그生活이 얼마나 悲慘할것이랴？ 뿐만아니라 被敎育者는 [illegible] 其他어떤 [illegible] 事하던지 [illegible] 必定 [illegible] 朝鮮語를 배울수업는 일이다 吾人은 朝鮮內 內地人兒童에 朝鮮語를 必須로배우던지 적어도 隨意로배우던지 하는것이 [illegible]의 生活上 便益이 多大할것을 指摘하고싶다 엇재된 今番 孝悌尋常小學에서 터진바의波紋은 敎育界에 미치지 는影響이 多大할것을 指摘하고 兼하야 當局者는 勿論 敎育家 及一般社會의 再考三思를 促하여둔다。

쉐코政府、테쉔地方을 波蘭에割讓承認
波軍、同地方進駐開始

【왈쇼一日發同盟】波蘭政府는 三十日의 對쉐코通牒을 쉐코政府가 受諾한結果 波蘭은 明二日을 期하야 테쉔地方에 進駐할旨 如左히發表하엿다

쉐코政府는 波蘭政府의 要求를受諾、明二日午後二時를 期하야 波蘭軍隊의 테쉔地方에 進駐함을 正式承認하엿다

右發表에依하야 쉐코政府는 주데텐地方만 아니라 또、波쉐國境의 테쉔地方을 波蘭에 割讓함에 同意한것이 明確히되엿다

【프라하一日發同盟】쉐코政府는 一日波蘭 쉐코國境 테쉔地方의 쉐코軍隊撤收에 關한波蘭政府의 要求를 受諾한旨를 發表하엿다

테쉔割讓에關한 쉐코政府의回答

【왈쇼一日發同盟】波蘭政府는一日쉐코政府가 드듸여 테쉔地方割讓에 同意한旨를 發表하엿다 割讓에關한 쉐코政府의 回答內容은 如左하다

一、波蘭人이 壓倒的으로 多數居住하는 시지아、테쉔地方을 波蘭에割讓함
一、쉐코는 一日午後二時까지에 同地方으로부터撤收、波蘭軍의손에引渡함
一、他테쉔地方及 프리스타트地方은 十日以內에 引渡함
一、其他地方은 兩國交涉에依하야 人民投票로決定함
一、쉐코軍에 入隊中인 波蘭人의兵役을解除함
一、拘禁中의 波蘭政治犯人을 釋放함

熱狂的歡呼裏에 獨逸軍三萬進駐
주地方四分一占據完了

【파소(오스트리아州)一日發同盟】리탑-폰스텐將軍의 引率하는獨逸軍先進部隊三萬은 一日午後一時보헤미아 森林地帶의힐펜벨히와 핀스테나우間의 獨쉐國境을越하야 주데텐 地方으로進駐를開始하엿다 進駐部隊는 獨逸各村落에서 祖國에歸屬하는기쁨을마지한 주데텐 獨逸人들의 熱狂的歡呼의 出迎을바드면서隊伍堂堂感激의 行進을 繼續하야 四時間後에는 國議定書에規定된 第一區域中四分一의 占據를 完了하엿다 一方進駐하는獨逸人과 撤收中의쉐코軍間에 不意의衝突을 避하기爲하야 獨쉐兩軍當局의 協議에依하야 幅一키로의緩衝地帶가設置되엿다

獨逸國防軍 쉐코進駐發表

【伯林一日發同盟】獨逸國防軍當局은쉐코進駐에 關하야 一日午後如左히發表하엿다

폰·래브將軍이 指揮하는 獨軍部隊는 伯林時間一日午後二時 보헤미아 森林地帶의 舊獨쉐國境을너머 四國協定의 規定된區域에 進駐를 開始하엿다

히總統、伯林에歸還

【伯林一日發同盟】뮨헨會談에서 英佛兩國首腦 [illegible]

近世 外交史上 未曾有의 勝利를獲得한 히틀러獨逸總統은 一日午前十時四十分 特別列車로뮨헨으로부터 伯林에 凱旋하얏다 此日 驛頭에는 한거링以下黨政各方面總出動으로 出迎하야 안할라-驛에서 總統官邸에向하니 沿線에는 數十萬의 伯林市民이 我等의 總統이라고 熱狂的歡呼를送하엿다 總統一行이 官邸에 入한後도 官邸前엔 數十萬市民이『히틀러萬歲!』를 부르지저 수에 히틀러總統은 괼링총相及 수데텐黨首헨라인氏를 相携하고 발코니에나가 이를 鎭靜시키는 狀態엿다

쳄벨린首相 英獨共同聲明에 調印

【뮨헨三十日發同盟】쳄벨린英首相은뮨헨으로부터 歸國하기前三十日午前히틀러 總統을訪問 英獨關係에 關하야 重要會談을行하엿는데 出發에 압서英人記者에對하야 英獨共同聲明에 署名한旨를 如左히言明하엿다

今朝(三十日朝)余는 히틀러總統과會談하고 다음 共同聲明에調印하엿다即獨逸總統과 英首相과는 今日다시 會談을繼續한結果 英獨關係의問題는兩國에 잇서서나 全歐洲에 잇서서나 가장 重大 하다는데意見이 一致되엿다 我等今晩調印한 協定及英獨會談協定은兩國이 決코 再次戰爭을 行하지안흘 熱望을表徵한것으로認定된다 我等은 恒常 紛爭의 諸原因을 除去코저 努力을 繼續하야 써歐洲의 平和保障에 寄與할決定이다

英獨交涉을 나치스黨代辯者示唆

【伯林一日發同盟】三十日뮨헨에서의 히틀러總統 쳄벨린首相의 共同聲明發表에 依하야 英獨關係好轉이 期待되든바 나치스黨스폭스맨은 一日午前英獨交涉開始를示唆할 如左한 重大言明을行하엿다

英獨協定의 主要內容이 될것은 陸軍及空軍制限에關한 協議일것이다 一方獨逸政界에서는 獨逸問題에關한 英國側의懷疑도 解消되엿스므로 只今植民地問題에關한 交涉을 阻害할것은 아모것도업다는意見이 盛行되고잇다

匈牙利參謀總長辭職

【부다페스트一日發同盟】匈牙利參謀總長 루이스·케레스태스-밋사將軍은 病이라는理由로 一日辭職하엿다

英佛伊三巨頭鼎座 地中海上서協議乎
歐洲의諸懸案打開次

【倫敦一日同盟特派員發】뮨헨協定에 繼續하야 히틀러總統과쳄벨린英首相은 不戰共同宣言을發表하엿는데 다시쳄벨린英首相은 來週臨時議會終了後羅馬에 赴하야 地中海에 呂를띄우고 달라디에 佛首相과 함께 뭇솔리니首相과 三巨頭가 鼎座하야 地中海問題西班牙問題等을 協議할것이라한다 其他메멜、딴치히 及植民地問題等 歐羅巴의 懸案은 적지안흐나 大勢는 四國協調에 依하야 歐洲의危局은 解消될것으로 豫想된다

(寫眞上으로부터 쳄벨린 뭇솔리니 달라디에 各首相)

元田肇氏逝去

【東京電話同盟】正三位 勳一等樞密顧問官元田肇氏는 去八月早터 宿病인神經痛에 腦脫臟石이더하야 東京麴町區紀尾井町八의自宅에서 療養中이던바 一日午前八時十分逝去하엿다 享年八十一

中村軍司令官歸任

南朝鮮方面初巡視를마춘 中村朝鮮軍司令官은 杉本副官其他를 帶同、一日午後一時 三十五分着"아가쓰기"로歸任하엿다

日曜氣配

▲期米 內地米第一回 收穫豫想發表는 一般의 豫想보다多少增加되여 人氣頭重이나全般的으로 强保合하야 消極的이어서 氣配不變。

▲株式 쉐코問題解決과 漢口의 攻略戰進展모양에 底堅이나 아직도 新動機待로 傍觀態度이다

大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東新 [illegible] 滿業 [illegible]

西班牙問題도 近近諒解成立乎
倫敦外交界의觀測

【倫敦一日發同盟】四國巨頭의 뮨헨會談에서 歐羅巴政局은 俄然好轉하엿스므로 倫敦外交界는 近近英佛伊間에 西班牙問題에關한 新諒解가 成立하리라는 觀測이 有力化하고잇다

即쳄벨린 英首相과 뭇솔리니伊首相은 먼저伊國이 西班牙로부터 實質的撤收를 行하면 英國은 이機會에 去四月成立한英伊協定을 發動하야 伊國의 에디오피아併合을 正式承認하기로 同意할려라고한다 一方佛國政府는 英獨佛伊側에서는 佛國政府는 英獨佛伊四國協定에도參加할 意思가 잇다고 하는바 이四國協定成立을爲하야는 獨伊側은 西班牙의 프랑코軍의 勝利라는 代償을 要求할것이라고 보고잇다

英、漢口攻略後의 日本態度를注視

【倫敦一日發同盟】뮨헨會談에依하야 歐洲는四國協定의 新事態의 發展을 示하고 잇는바 如斯情勢가 極東에 如何히 影響을 미칠것인가에 對하야 倫敦外交界의 觀測도 區區하다 그러나 今後 支那事變에 關連하야 英國政府는 後顧의 憂慮업시 權益擁護를 强硬히 主張할수 잇게 된것은 틀림업다 그러나 쳄벨린首相은 現實을 基礎로하야 對支政策에 對하야도 必要에 應하야 百八十度의 轉換이 豫想되며 支那에 잇서서의 懸案 處理에 關한 帝國政府의 方針如何가 萬事를 決定할것이다 漢口攻略戰에 잇서서의 帝國政府의 外交政策은 이

下馬評에오른 專任外相의面貌

【東京電話同盟】宇垣外相의 辭任에依한 外相後任에 對하야는 爲先 近衛首相의 兼攝으로 決定하엿스나 此는 暫定的이고政府로서는 適當한 人選을 決定하면 陸海軍方面으로 부터의 强烈한 要求도잇서서 速히專任外相을 設置할 意向으로 近衛首相은 方今 各方面의 狀況을 基礎로하야 後任을 物色中이다 그러고 專任外相銓衡方針은 于先外相과如히 所謂 政界의大物보담도 首相과 肝膽相照하는人物로서軍部와잘協調할수잇는外務出身의人物을標準할意向인데風說의 人物은松岡洋右 佐藤尙武 有田八郎 齋藤博 白鳥敏夫諸氏들이다

(寫眞上 佐藤尙武 下松岡洋右氏)

三橋警務局長 旅客機로北朝鮮에

三橋警務局長은 前番張鼓峰事件의 咸北國境警察活動에對한 慰問及今後의 警備施設計畫에關하야 現地視察次 一日午前十時二十三分汝矣島發 新設定期航空便으로 淸津에向하엿다 咸北國境、現地를 慰問視察後來五、六日頃飛機로 歸京할터이라다

世界週史

田家鎭占領

難攻不落을 자랑하는 武漢의 關門 田家鎭大要塞는 我軍이第一、第二、第三陣地를 [illegible]하야 武漢會戰의 成敗를 此一戰에걸고 頑强히抵抗 하엿스나 果敢無雙한 我軍의 猛攻아래는 못견대 支持치못하고 二十九日正午頃에 完全히 我軍의手中에 陷落되엿다。

宇垣外相의辭任

對支中央機關 設置問題에 關하야 軍部와 外務當局間에 [illegible] 本所見을 달리하야 安協點을 發見하고저 여러번 折衝을 거듭하엿스나 마침내 意見의 一致를 보지못하고 宇垣外相은 就任以來四個月만에 辭任하게 되엿다 近衛首相은 陸海相其他 關係와協議한後 宇垣外相兼 拓相을 [illegible]하고 [illegible] 路邁進하기로한後 三十日 外相 拓相은 首相이兼攝하게되엿다

이러하야 [illegible]의 對支院을 [illegible] 陸、海、外三省事務當局間에서 成立된 安協案을 採擇하야 對支長期建設에 關한 具體的方策을 確立하게되엿다。

聯盟、制裁條項採擇

聯盟理事會는 三十日 公開會議에서 支那側의 要求에依하야 規約第十六條의制裁規約을 適用하기로하되 그適用方法은 聯盟 [illegible]

四國協定成立

二十二日第二次 쳄、히兩巨頭의 會談에서 주데텐問題가 히틀러總統의 對쉐코三日期限附의 最後覺書에依하야 거의 그緊張의 絕頂에 達하엿슬때에 쳄벌린英首相은 佛伊首相外相及 參謀總長을 倫敦에 招集하야 英佛共同作戰에 [illegible]하야 協議한結果 쳄氏는 最後 讓步의 [illegible] 히總統에게 傳達하야 히氏의自重을 要望하엿다 히氏도 二十六日 伯林스포-츠파라스트大會館에서의 演說에서 쳄首相의 親書를 受諾한旨를 聲明하야 一觸卽發의 危機는 于先 少康을 보엿다。

[illegible] 首相은 [illegible]方에서 伊首相을 出馬시키기에 成功하야 英首相으로 하여금 히總統에게 [illegible]케하는 同時에 英佛에 英佛獨伊의 四巨頭會談을 提唱케 하엿다 이러하야 히總統도 英首相의 [illegible]수업고 또 此四國會談은 自己에게 [illegible]바업겟스므로 二十九日 뮨헨에서四巨頭의 歷史的會談을보게되엿다。

四巨頭의 會談은 三十日 早曉에 이르러 兩國의 주데텐地方割讓에 關한 四國協定이 成立하게되엿다。그리고 쉐코政府는 [illegible] 三十日午前에 此協定案을 受諾하야 獨軍은 十月一日午前零時를期하야 西南獨쉐國境에 進駐하게되고 地方쉐코軍은 三十日夜半부터 規定된 地域으로부터 撤收하기로 되엿다。

쿠퍼英海相辭職
쳄首相外交政策에不滿

【倫敦一日發同盟】다프·쿠-퍼-海相은 쳄벌린首相의 外交政策에 不滿을 表明、一日 突然辭職하엿다 辭職理由에 關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余가 辭職한것은 쳄벌린首相의 外交方針에 多大한 不信을 느낀까닭이다

(寫眞은 쿠-퍼-海相)

벨사이유條約과 國際聯盟規約을分離

【쥬네브一日發同盟】聯盟總會는 三十日聯盟規約과 벨사이유條約을 分離하라는 勸告案을 採擇、一日勸告案實施에對하야 聯盟과 非聯盟國間의 協力에關한 提案을 日米獨伊其他非聯盟國에 通達하기로 決定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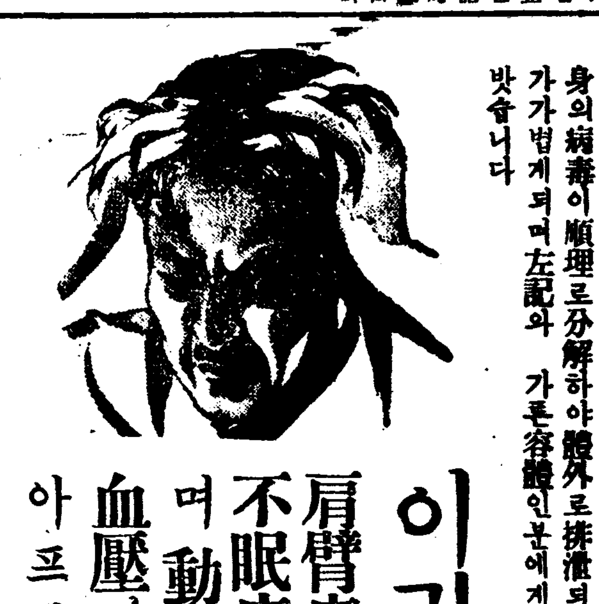
辭令

任總督府技師(四等) 窪田次郎治 (京城測候所長)
任總督府技師(七等) 瀨谷三郎 (濟州測候所長)
命學務局勤務
(京城)總督府府理事官 築瀨末太郎
任總督府府尹(六等) 命海州府在勤
總督府慶尙北道屬 岡野定乙吉
任總督府府理事官(七等) 命京畿道在勤
總督府感化院敎諭 山本內藏
任總督府感化院敎諭(七等) 兼補總督府木浦學院敎諭 兼補總督府木浦學院長
總督府郡守 諸富覺一
命黃海道碧城郡在勤

八面鋒

◇京城某小學校(朝鮮人)에서는 學父兄에게『子女에게 朝鮮語를 가라칠이 조흐냐 마느냐』를 照會햇다고。
◇小學校에서도 朝鮮語科가 隨意科로 되어잇스니까 그리하자는 뜻인 모양。
◇그러나 朝鮮語가 朝鮮人兒童에 不可缺한것은 張皇한 煩說을 不要。
◇日常生活에 必要한 말과 글을 안배우고 어찌하랴。
◇中學校에서도 그러하거든 況小學校에서랴。
◇學校及 監督當局의 再三考慮와 法의 運用의 善良을希望。
◇十月一日을 期하야 獨逸軍 주地方에進軍開始。
◇獨逸人의 意氣가 衝天이겟군。
◇民族自決을 標榜한 英佛等이 獨逸의 民族統一國家를 建設하는데 反對는 못하고。
◇自己權限인 쉐코의 勢力은 減少되어가니 그야말로 떡먹다가 빼집바께。
◇쉐코를 犧牲하고라도 歐洲에 平和가 維持되는것은 英國의 外交的 功績。

今日本紙四面



無病長生
病으로 煩惱하는분께 推奬하고시픈 養生法

溫泉地帶에 產出하는成分으로 된 排毒、淨血劑 わう錠을 每日一回 아주小量씩 잡수시고 就寢하면 翌日多量의 赤黑色大便이나오고全身의病毒이 順理로分解하야 體外로 排泄되며 氣分이爽快하고 머리가 가벼게되며 左記와 가튼容體인 분에게 꼭 神效하다고 환영을 밧숩니다

이런容體에
肩臂痛、耳鳴、頭痛 不眠症으로 辛苦하며 動悸와숨이차며 血壓이놉고 手足이 아프고 저리며 元氣根氣업고 便秘로 氣分이 沈鬱한데

酒煙草를 만이하고 肉、白米、砂糖等의 酸性食物을 過食하며、便秘나 黴毒、結核이 잇스면 血液은 酸性으로 하야 中毒症狀을 어르키는것인데 그우에 過勞나 근심이 잇서서 밤에 安眠을할수 업던지하면 全身에 毒素가 發生하야 頭痛、耳鳴 肩臂痛 動悸와 숨차는等 原因이 됩니다 또 動脈이 硬化하야 血壓이 노파서 中風、半身不隨로 煩惱하게되며 手足이 무겁고 아프며 저리고 神經痛이나 류마치스 婦人되는 분은 月經時히 스테리-로 苦生하며 元氣根氣가 衰退하야 早老하는것입니다 病을 治療하야 長生하는데는 病根이되는 前記의 諸毒을 大小便으로 取去시키는것인데 이目的에 應用되는것이 和黃錠으로 一日一回 就床前服用하시면 翌朝便하게 大便속에 毒을내보내고 氣分이 爽快하고 머리도 가벼워집니다。

和黃錠이 뛰여난 效驗

至毒한 便秘에 千葉縣 島田 邦氏
拜啓 生은 오래동안 至毒한 便秘로 困難을 밧던中 突然新聞紙上으로 貴所의 和黃錠에 關한 글을 읽고 去四月十三日 東上 一個月分 買求하야 即時 使用하엿든바 놀낼만큼 效果가 잇

이藥은 決코 多量으로 服用할 必要가 업고 一日一回服藥으로 充分하며 오히려 처음에는 效果가 지나치게 잇슴으로 一、二錠으로부터 始作하야 漸次增量하야 三-四錠으로 하는것이 適當으로 되여잇습니다 全身의 病根이 分解하야 順理로 兩便에 섞겨 排泄되며 氣分이 爽快하며 肩臂痛、頭痛이 업서지고 머리도 가벼워집니다。血壓도 完全下降하야 手足이 저리고 아프든 症이 적어지고 內分泌도 調定되는 고로 元氣根氣가 더해집니다。뒤를 잘보게되면 머리 무거운症과 憂鬱症도 解消되며 오래만에 氣分이 씨슨듯하게 되엿다는 이도 잇습니다。

肩臂痛도 나어 〔北海道 宮本友次氏〕
拜啓 初夏之節 貴所益益隆盛하심을 奉賀하오며 就先日和黃錠 一個月分을 下送하시여 即時服用하엿삽는바 肩臂痛이 꼿업서저서 其藥效에 놀라고잇습니다。이제 一個月分 더 服用코저하오며 또한 小生의 友人 二人도 服用하고저 하오니 一個月分 三個代金 五圓四十錢을 至急 代金引換으로 下送하여주시기 바라나이다

手足이 저린데 福岡 加地八十一氏
拜啓 先月 送藥하신 和黃錠 服用하엿삽더니 허뎅기는것、手足저리는等症狀이 減少되고 눈도 至極 良好하게되엿삽니다 就此 葉書到着하는대로 代金引替로 一個月分 下送하소서

血壓도 내려 〔長野縣 小平 涉氏〕
拜啓 先日은 速히貴所의 藥을 보내주시어서 實로 感謝합니다 德澤으로 藥效도 잇고 血壓도 내려서 大端히 몸이 便하여젓습니다。얼마나 이런病이 괴로운것인가를 自身이 알어보고야 새삼스레 느낀것입니다。藥은 病人에게 나누어 주엇사오니 이 藥書到着되는대로 至急 二個月分 下送하여주십쇼。斯道를 爲하야 一層研究를 하시여 社會를 爲하야 援助하심을 바라나이다。

病을 早速快差케하는 養生法 無代進呈
그대신 適當한 養生法을 實行하며 藥이 體質에 마즈면 意外의 效果가 잇슴니다 藥의 服用과 가티 養生法을 직히지 안허서는 아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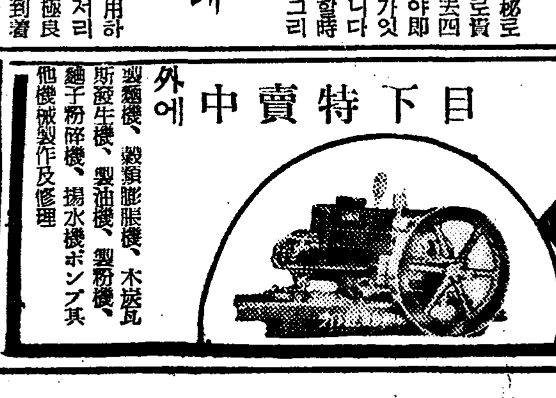
動脈硬化도 快方으로 宮崎 毛利元享氏
拜啓 益益隆盛하심을 仰祝이로 一個月分 代引으로써 下送하여 주시옵소서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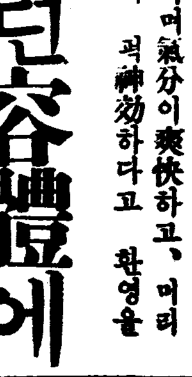
排毒 淨血 通便 特殊養生藥
和黃錠
○實로氣分조케 大便을보고 全身의病毒이 順理로 分解하야 大小便과 가티 排泄되며 血色이 조와집니다。
○血液이 淨化되는고로 血壓이 完全降下하고 頭重、頭痛、耳鳴、手足저린것이 낫습니다。
○一日一回의服藥으로 適量은 三-四錠이나 最初에는 一、二錠부터 始作하시오。服用하는것은 就寢時가 第一조코 翌日 氣分조흔 大便을 보시고 머리가 爽快해집니다。
○內分泌을 正調로하는 作用도잇는 故로 元氣와 根氣를 增加시킵니다。
○副作用이 업고 他藥과 가티 도조금도 支障이 업습니다。
○大便이 赤黑色이 되며 小便도 色이 달러지는 이가 잇스나 이는 藥效때문입니다。
東京市四谷區 [illegible] 特殊榮養研究所

藥價極히低廉
一月分 金一圓八十錢
二月分 金三圓二十錢
四月分 金五圓五十錢
九月分 金十圓
送料內地十錢 海外三十錢增 되도록 直接注文하시오 代金引換도 受付함니다
左記代理店에도잇소
[illegible]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文房具·事務用品
在庫豐富大都賣
東光堂文具卸部
卸目錄要三錢切手
京城府鐘路四丁目 電光三七〇番 振替京城16121番

目下特賣中

外에 製麵機、穀類膨脹機、木炭瓦斯發生機、製油機、製粉機、麵子粉碎機、揚水機ポンプ其他機械製作及修理
天下無比優秀한性能
各馬力共在庫豐富
ライト 最新型輕油發動機
京城府元町一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一四二七番

【無效返金】

淋疾梅毒
[illegible] 滿蒙特產物商會
强精秘藥
早漏
秘藏曲集

都心地帶의住宅에 垈地制限令을實施

最低一人當卅坪 最大限度도考慮中

一家食口에도制限을加하야 住宅制度에大革命!

도시 농촌을물론하고 조선주택의 기지는 총면적의 칠할이내로 건축한다는 건평의 제한이잇슬뿐이오 기지 총면적에 대하야는 하등 법규로 제한된것이업서서 최저로는 단사오평에도 건축할수가잇고 최고로는 몃만평의 기지를가질수도잇는현상이다 그리하야 토지가 귀한 조선 각도시 도심(都心)지대에는 방대한 면적의 기지를가진 주택보다는 극히 협소한 면적의 기지에 다수한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국민건강과 체위(體位)향상에 비상한 영향을 밧게될뿐아니라 도시 미관상 중대문제이므로 총독부에서는 우선 각도시 도심지대주택기지의 면적을 제한하는법규를 제정하기로 방침을 결정한후 방금 그입안을 준비중이다 그런데 도심지대(都心地帶)라고하는것은 어느도시를물론하고 가장 번화한 중심시가를 말하는것인데 이것은 총독부에서 그구역을 지정하는것이다

이것은 현하시국관계상 가장 중요한국민보건을 중심으로하는 문제이므로 느저도 명년중에는 제령(制令)으로써 발표실시하도록진행할터이다

그런데 이법령입안의 골자인즉=각도시의 도심지대주택기지는 인구한명에 삼십평을최저한도로제한하고 한가족은 오명내지십명을 최고한도로 제한하야 가족십명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분가하는것을 원측으로한다 현재 조선인가정은 일가친척이모여살어서 식구가십명씩 되는가정도 잇스나 이것은 인정하지안코용인가족을합하야 최고십명이상은 허락지안케된다는것이다 그다지 큰면적 즉몃만평씩 기지를가진 주택이업스므로 주택기지 최고면적제한에대하야는 방금고려중이나 최저한도의제한이 잇는이상 최고한도의제한이 업슬수가 업스므로 이것도필경 제한될것으로보인다 이법령이실시되드라도 기성주택은 적용하지안코 법령시행후 신축또는개축하는 주택에만 적용실시할터인데 이러케되면 다섯식구사는주택은 최저일백오십평이상 열식구사는주택은 최저삼백평이상으로 되는셈이다

"保健과美觀上 必要한法令이다"

內務局 坂本事務官 談

이에대하야 내무국 토목과 판본사무관(坂本事務官)은 다음과가티말한다

국민보건상으로보나 도시미관상으로보나 적은기지와 적은주택을가지고 도심(都心)지대에서 만흔가족이거주하는것은 불가한일이라고생각한다 그러므로 국민보건 도시미관을 아울러 보존하자면 적어도 한사람아페 삼십평의 주택기지가 필요하다 그리하야 위선 도심지대에한하야 주택기지를 한사람아페 최저한도 삼십평으로 제한하는법규를 제정하라한다 만일 도심지대에서 한사람 이삼십평의기지를 가지고 거주할수업는 가족은 토지가격이 저렴한 교외로 나가서 널직한 터전을 가지고사는것이 보건상으로나 경제상으로나 매우유리할줄로 생각한다 이법령은 물론제령으로 될것이나 그실행시기에 대하야는아직 명언할수가업다

朝鮮防共協會 金浦支部結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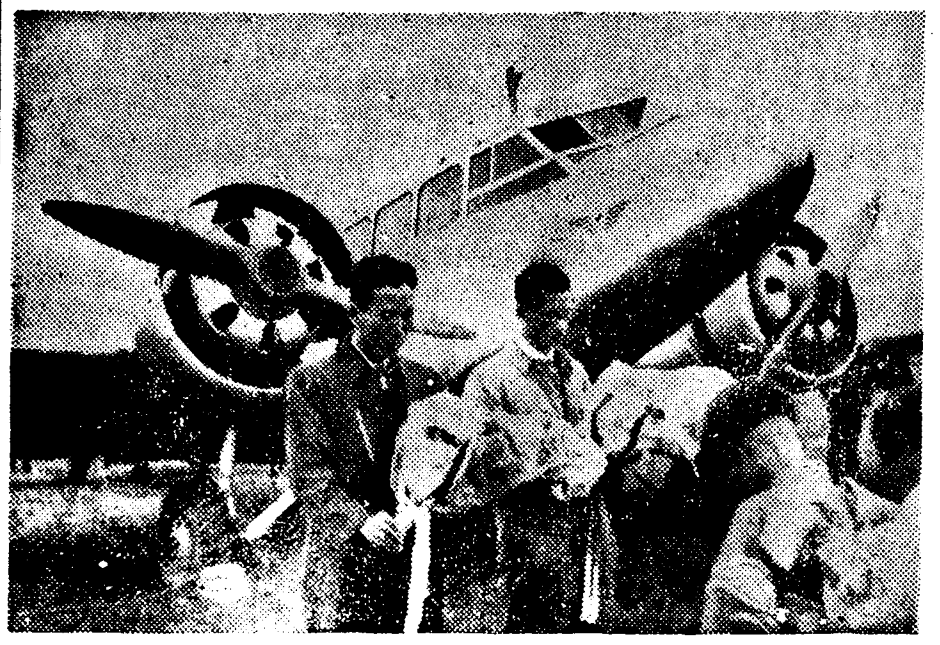
【金浦】조선방공협회경기도김포지부『金浦支部』결성식을 지난이십팔일오전 열한시부터김포신사에서 경기도 사회과장을위시하야 관민사백여명 참집하에성대히 거행되엿다

協成學院兒童 水害民에同情

【博川】뜻하지아니한 관북의참담한수해로 수만호동포가 헐벗고 굼주리여 창천을바라고 수마에휩쓸어간 비인터에서 대성통곡하는 원한성은 아직도우리귀에 사라지지안는때에 박천협성학원(協成學院)아동들은 푼푼이모은돈 팔원육십전을 재해지에 보내달라고 본보박천지국에 기탁하야왓다는데 무산아동의 공부기관으로 되여잇는 동학원아동들이 빈약한주머니를 털어괴로는 동포애(同胞愛)에넘치는 동정에는 일반으로하야금 적지안흔 감격을주엇다

群仙鰛魚豊獲

【利原】함남이천군 군선(群仙)파 차호(遮湖)에서 지난이십오일부터 이십팔일 남하하는 온어를 출어하여 상당히 잡엇다는데 군선서만 수일간에 잡은 어회고가 칠천여준이라는데 도시기도 박도한이때에 어민들잔뚝준비를하고 대기중이라한다



機上에서본 大淸津의偉觀

空中特急初乘記 (續)

【淸津飛行場에서本社特派員金承龜】일동이 뻬ー루로 축배를들고난다음 엔진을 정비하고 예정보다 칠분느저 열한시사십분 함흥을 떠낫다

성천강(城川江)의하구에 한어시널려저잇는 함남의 곡창(穀倉)가티 보인다 어느듯 크고적은 함흥평야도 이번가을만은 저번수해로 팔미아마 러비여잇는것굴뚝이 검은연기를 토하며 공장건물이 수백채 나란히 잇는것이 보인다

함남의 심장부 야구왕국(野口王國)의 본거 흥남공장지대(興南工場地帶)의 위관이다 기수는 해안선을따라 동북쪽으로 오백메ー타의 고도로 미끄러지는듯이 날러간다 검푸른 바다물이 기암절벽에 부디처서는 흰베폭을 느러노흔듯이보히며 육지와 바다와의 대조가 이처럼 화현한것을 보는것은 처음이다

공중에서보는해안선(海岸線)의 자연미이다 오전이지나자 마자 일면함무지처럼 보히는곳은 단천남대천(端川南大川)인가보다 지난여름 홍수에 그처럼 폭위를 마음대로한 이강도 지금은 잠자는듯이 잔해(殘骸)를 고히눕히고잇슬뿐이다 저강어구에 멀지안히 지금의북조선선경(淸津雄基、雄基)보다 더욱선한 항구가 나타날때도멀지 안흐리다고 함남과 함북의 경계선인 마천령산맥(摩天嶺山脈)의대는 태산준령이 첩첩히연접하야 잇는것이 우이를더피버린 흰구름사이로 희미하게보힌다 말쑥하게개인날이면 북쪽으로 북쪽으로한 없는듯에 백두영봉(白頭靈峰)도 보힐것인다 이할코의출째가는난 코ー스 마천령을 넘어서자 성진(城津)이다 열두시반 기수는 이곳에서 부터 다시산속으로 들어가 북쪽으로 직선

코ー스를 날으고잇다 사십오분관북금강(關北金剛)명천칠보산(明川七寶山)을 공중에서 탐승하엿다 산능어리 골작우니 할것업시 단풍으로 붉게물드려 잇다 끝끝이보히지는 안허도 말에듯던 경승인에 틀림업다 이런생각을하고잇다가 문득아풀 보니 기선별선이 갓득모혀잇는 항구가보힌다 대청진의 위관 이다 오후한시칠분 청진비행장에 역사적 착륙을하엿다 이로써 경성, 함흥, 청진간 오백오십키로의 전항정은 완전히 정복되엿다 기자는 꼿(출영한 십수사단장(대리)함북지사(대리) 청진부윤 청진상공회의소회두에게 가지고간본사의 멧세ー지를 전달하고 야연장(野宴場)에 이르러 청진관민수백여명과 이날의축배를가치들엇다 비행장에는만주항공회사 여객기한대가이처녀비행을 축복하고저와잇는것이보힌다 (사진은 청진비행장에서 꼿다발밧는 조종사들)

翌日基地歸還

경성 함흥 청진간오백오십키로를 무사히상파하야 처음엿노

에서공항한 일본항공수송회사 엠보이두대는 일일오후 두시오십분 청진비행장을떠나 도타오는길에올나 네시반함흥에 무사히 도착하야 급유(給油)기라 엔진 정비를하고잇든중 경성방면에강우로 제일납관산방형(三防峽)에 기류가 대단납부다는 입전으로 부득이함흥에서 비행을 중지하고 어일아츰 천기회복을기둘너 경성에 도라와 예정시간보다느저 동일정오시반조선공항하야 제이일의정기항공의귀에올낫다

淸津商議會頭 本社長에謝電

【淸津에서】威北特派員吳快一殿】본사에서 경성청진간 정기항공노개통의 의의잇는날을 축복하기위하야 본사 김동파원으로하야금 관계요로에게 멧세ー지를 보내드대하야 당지상공회의소회두·사원가평자(四元嘉平次)씨는 본사장 방응모(方應謨)씨에게 다음과가든회답을하엿다

邦家를爲하야 慶賀하는바이다 一日의 처航空에 際하야 貴社의 멧세ー지에 對하야 深謝를表함 十月一日

淸津商議會頭 四元嘉平次

朝鮮日報社長 方應謨 殿

咸興商議會頭謝電

본사의 축하멧세ー지에대하야 함흥상공회의소회두 임량작(林良作)씨로부터 대요 다음과가튼 회답이 본사사장 방응모(方應謨)씨에게왓다

商取引及交通關係로보아 京城을基點으로 北鮮은 最近飛躍的發展을하고잇는데 吾人의多年의宿望이던 定期航空路開設에當하야 工事하는바외다 나는 本航空路의 開通이 將來 一層 貴地와 咸興과의 商工關係에 接觸을 緊密히하야 相互繁榮에 寄與할바 甚大할것을 기뻐하는 同時에 本航空路開設實現에 多年御盡力하신 貴社에 對하야 深厚한 感謝의意를表하며 本施設에關하야 御高配하신 當局에對하야 萬腔의敬意를 表하는바올시다

金佛像破鑄端緖로 金密賣事件綻露?

大邱府內의金銀商을總檢擧

事件은京城、釜山에도波及

【慶北支社發】금제품 금지(金製品禁止)의 배후에서 폭리를 취하려다가 당국의 탐지한바되여 방금대구서에서취조중의대구부내 이정목 일번지 모금은상 직공 이성조(李聖祚)(三〇)가 금불상(金佛像)을 파손하야금제품을 주조하엿다는 혐의로수일전에 검거된후 그취조에따라사건이 의외의 진전을보이여지난이십구일까지에 부내 십여소금은상이 전부 검거되엿스며더욱대구서 사법계 적석(赤石)부장이하 수명의 형사대를 경성방면에 급파하여 방금 그주모자를 추격중이라는바 동사건은금 밀매 밀수등에까지 파급된것으로 동사건은금 경성부산방면에까지 비화확대되리라고한다

咸興署刑事隊 入京猛活動

金某等의行方嚴探

【咸興】=지금 밀매 밀수사건은 형편엇데 그범행방식은 대개가 점차로 전조선적으로 확대될기미가 농후하야 이미 적발된것만도 전남(全南)경북(慶北) 함남(咸南)의 삼도에 빼치고잇는 일정하여 직접 광산에가서 그곳서 갓파내온 지금을 시까보다 비게사오다는것인데 연락기타의 본거지는 역시 거개가 경성(京城)인모양이여서 일일 대구서형사대의 일경의뒤를이어 이일에는 함흥서 형사대가 재차상경하여 시내각서의응원을 어더가지고 다옥정(茶屋町)김모(金某)(?) 종로육정목 홍모(洪某)동재와 숭인정(崇仁町)석모(石某)(?)등 네명의행방을 엄중내사중에잇다한다

唐麵製造 都賣 釜山豆麵工場配給所 釜山府大橋通一ノ六二 電話 一八三七番

鐵細工業者打擊

嚴冬을압둔仁川에서

【仁川】전시체제하에 잇서일반 물까 폭등함으로 민간의경제에 일대 위협을 맛게되여 이를 억제시키려고 관게당국에서는 물까폭리작제를하고 잇스나 눈치빠른 장사치의들을 속여사복을 채우는 간상(奸商)들파암약이아직도 사라지지안는영향이 만흠으로 인천부와 인천서에서는 그취체에 철안을동원이고 중에도 심한것은 철공기금의이때에잇서서 일반철세공업자가 더욱 곤궤에이르럿슴에도 사변전에 사용해노흔 철아연판(鐵亞鉛板)을 현시로서는 한장에일원삼십오전하는것을 이원 사십전식이나 바다면서도 재고품을 내노치안흠으로 인천부내의 세철공업자는 날이갈수록 비명을 부르짓고잇스므로 더에도 철물이 업고 잇서도시세 이상의 금액을바드므로 일반으로서는 그들의생계가 어떠케될지 크게우려된다고한다

第七回 水道協會總會

十二日부터四日동안

제칠회수도협회(水道協會)총회는 오는 십이일부터 십오일까지사일간경성부민관과 사업회관에서 개최하기로되엿다 참가할사람은 내지, 조선, 만주, 대만의 각도시시장, 조역, 부장, 국장을비롯하야 당국자와사계권위자를 망라하얏는데 그일정은다음과갓다

第一日(十月十二日) 午前九時부터正午理事會、午後一時부터四時까지 總會

第二日(十月十三日) 午前九時부터午後四時까지部會

第三日(十月十四日) 午前九時부터正午까지部會 午後一時부터 府內視察

第四日(十月十五日) 午前九時부터 仁川視察

도돈톨리라고 햇다◀문제는 돈때문인데 고민영회자작으로말하면돈모는재간이 비상하여 당대에천만장자로 천하가부러워하게좀되엿던것만은 누구보다도 그자신이 가장잘알것이나 ◀오늘에남은 아들들이 자신이모아서 남겨준 돈때문에싸움이나서 담뱃속에서라도 듯는다면 돈모기를 그만하라고했던면하는 후회나 안할런지 ◀그런데원고의 소장에의하면 고민작은 축재에 비상한 노력을하는데 과연홉을이용하여 돌범한 축재를한것도잇다고 재물을불리라고 소송하는사람도 만허서 그때문에재산을 모두자신 의명의로 두기를피하야 차남의명의로 신탁해서왓다고◀그러케까지생각을할해서 해던노른이내종에 그아들에게 그아들이재물 내리는 경계와송을 하게꿀되엿스니◀세상사일이란 두고두고보아야안할일

色鉛筆

조선갑부의민영휘 자작집안 적자서자소송은 부편이나오고 송편이 또나오는데 땅돈돈도나야 겟지만 선대의 금판조복을의지하야 담배人대까지

스포ー츠

對京師러비 養正大勝

四十對零의大差

第十四回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中等部러비第一回戰의 養正中學對京城師範戰은 一日午後零時五分부터 龍山鐵道球場에서 佐藤氏主審下에 養正軍이 開始된바 結局四十對零으로 養正軍이 大勝하야 來十四日午後二時半부터 京城球場에서 行할 準決勝에 드러가 道商對京商의勝者와 對戰케되엿다

神宮野球 對戰을決定

養正40(2416:00)0京師

第十四回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硬、軟式野球大會의 各部對陣抽籤은 다음과가티決定되엿다

◇硬式部(京城球場)

【中等部】十二日午前九時

A、京商對東萊中學 B、京商對平壤一中(正午) C、徽里農林對大邱商業(三時) ▲十四日午前九時 D、仁川商業對善隣商業 E、徽文中學對龍山中學(正午) A의勝者對B의勝者(二時) ▲十五日午前九時 C의勝者對D의勝者 ▲十六日午前九時準決勝 D의勝者對E의勝者 ▲十七日午前十時決勝戰

【專門部】十七日午前九時 京城高商對京城醫專

【一般部】十五日正午 A、京城新人對全大邱 B、平壤鐵道對平壤實業(三時) ▲十六日正午準決勝 C、第二浦對全仁川 ▲十七日午後二時決勝戰 A勝者對B勝者戰(二時)

◇軟式部(奬忠壇球場)

A、江原道對京畿(十四日午前十時) B、平南對忠北(一回一時戰) C、京城府對黃海(四時) ▲十五日午前九時(二回戰) E、全北對A의勝者(零時半) F、忠南對C의勝者(三時) ▲十六日午後一時(準決勝) G、B의勝者對E의勝者 H、D의勝者對F의勝者(三時) ▲十七日午前十時決勝 G勝者對H勝者

女子卓球大會 卓球만은擧行

러그비는延期

朝新主催의 第十六回全朝鮮女子卓球大會는 一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豫定이던바 前日의降雨로因하야 明三日午前九時로延期되엿스며 이날오후時부터 行할 市內女學生 一千五百名의 聯合體操는 中止되고말엇다 그리고 京城府主催의 體育日第二日의 府民球大會는來九日府聯코ー트는軟式野球決勝의 黑人軍對兵器部戰은正午부터、中等野球準決勝戰의 龍中對京商戰(前日九對九同點)은午後三時半부터 決行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女子卓球 卓球는 東大門小學校 講堂에 午前十一時부터 開始되엿다

軟式野球黑人軍優勝

京城府體育日의 軟式野球決勝黑人軍對兵器部戰은 一日午後零時十分부터 京城球場에서 黑人軍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 四對二로 黑人軍이勝利하엿다

黑人	1000120000	4
兵器	0000000002	2

全日本拳鬪 十一月廿六日開幕

全日本아마츄어拳鬪聯盟에서는 今冬比島遠征을 計畫中이라는데 그 遠征代表의選拔戰을 來十一月二十六、七、八日의三日間 今年度全日本選手權大會를 東京에서 開催하기로되엿는데 이번大會에는 朝鮮、北海道、關東、關西、中部、九州、東海、北陸聯盟各聯盟에서 代表를參加 시킬것으로 期待된다 그리고比島遠征軍은 十二月十七日 神戶出帆의 아스타ー丸으로 出發하야 比島各地를 轉戰한後 來年一月四日 加茂丸으로 神戶에歸着할터이라한다

籠球選手歡迎會

籠協支部主催로

日本籠球協會朝鮮支部에서는 今日

自動車營業所 夫婦를慘殺

宣寧에强盜殺人(?)事件

【慶南宣寧支局特電】일일밤중진주(晋州)원전(原田)자동차부의령영업소에서 숙직주임 백정구길(白井久吉)부처를 어떤자가 칼로찔러 죽인것을 이일아츰 리(李)운전수가 발견 곳경찰에 급보하야 경찰에서는 강도살인으로 추측하고 범인을엄탐중이다

南總督 稻刈에參加

수원농사시험장시작답(試作畓)에서는 시월삼일오전열한시부터 조선농회주최로 남총독을비롯하야 관청회사의 현직관민다수가 참가하야 벼를버히기로되엿다

西署新築落成 記念武道大會

지난달 삼십일 신청사로 이전한 서대문서에서는 그간 도장(道場)건축을 급히하고잇든바 요지음 도장이준공되엿스므로이일 오전열시부터 부내각서대항무도대회를 열엇는데 갑자(甲)고(高)경찰부장 부내각경찰서장등 참석 오후세시경대성황리에 마첫다

張鼓峰事件慰問金

【濟州】제주도 애월면 장전리(濟州島涯月面長田里)에두고사는 변군 부지로 돈버리를떠나 서주(徐州)에서 세탁소를내고 잇던주병(朱周炳)군은 이번에사토고향 제주에 다녀가는 도중에 경성에 내렷다가 이일본사에차저와서장고봉사건희생자 원호금으로돈오십원을의탁하엿다

草履等이再登場

【慶基】비상시국에 대처하기위하야 고무제한을 바든이후로 일반민간에 제일만히 소용되든 바 고무신값이 미친것가티 폭동에 폭등을 거듭하야 빈약한 농촌생활향상으로는 여간곤란이안일만이아니라 더욱이 절약경제를 적극적 주창실시함으로써 소학생제군들은 벌서부터 자기손으로 집신을 삼아 신는바어니와 일반으로서도 시국인식이 줄실한일이아니라 자가의 경제를 저히 깨다랏슴으로 요사이에는 산촌동부의 너비려되는곳이어니와 시가지에까지도 수십년래로 종적을 감추렷던 미트리와 집신을 거리집에서 신고다니며 각백화점에서도 점두마다 집신짝을거러노코 판매하기를 시작하여 갈데마다 시국색이 완연하다고한다

天氣豫報

概況 滿洲朝鮮의 氣壓配置는 混亂되여잇고 小低氣壓은 黃海中部와 天津附近 雄基近海 滿洲中部等에잇다 高氣壓은北滿、本邦東北地方의 東海上에 퍼저잇다 朝鮮北部는 흐리고 其他는 비가온다 滿洲도大體로는 흐리고 南滿洲는 비가 오며 內地는 흐린편이만타

豫報 今夜는 흐리고 가랑비가나리며 次日은 흐리고가랑비가올것갓다(京畿全道로본것이다)

昨日最高 二二度三 同最低 一五度一 今朝最低 一四度〇 今日正午 十九度九

曆

▲十月三日(月)(陰八月十日) 干支戊辰 ▲日出午前六時二十分 ▲日南中午後零時二十三分 ▲日入午後六時十五分 ▲滿潮十一時四十六分 ▲月出午後二時三十八分 ▲月入午前〇時二十三分 ▲滿潮(仁川)午前十一時三十分

女子卓球戰績

朝新主催第十六回女子卓球大會卓球戰은 二日午前十一時부터 東大門小學校講堂에서 開始한바 어늘夕刊마감까지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淑明】	3…1	【向上】	
鄭福壽	0…3	金貞淑	
李金子	3…0	金永媛	
金華濟	3…1	梁貞淑	
李秀賢	3…1	朴昌煥	
【同德A】	3…0	【一高女】	
李桂輝	3…2	鹽見	
元 濂	3…1	橋本	
李喜順	3…1	澤渡	
【女商】	3…0	【同德B】	
崔明淳	3…0	池淳植	
李由賢	3…0	黃炳姬	
朴善順	3…0	鄭順錦	
【二高女】	3…1	【女實】	
野尻	3…0	森田	
志波	3…1	狩野	
安倍	1…3	小林	
水谷	3…1	德永	

【準決勝】

【同德A】	3…2	【女商】
高貞姬	3…1	廉金順
崔長壽	1…3	崔明淳
鄭然喜	1…3	李由賢
李喜順	3…1	朴善順
李桂輝	3…1	朴昌順
【淑明】	3…1	【二高女】
朴長順	3…0	富田
李金子	3…0	野尻
鄭福幸	2…3	志波
金華濟	3…0	水谷

一般部女師優勝

(決勝戰)

【女師】	3…2	【京保】
李貞童	2…3	李相媛
崔敬淘	3…1	黃賢秀
李正淑	0…3	尹貞姬
安基福	3…1	崔定鉉
李福求	3…2	朴富吉

一般部엔女師姜林組 女商金咸組優勝

京日主催의 第廿回 全朝鮮一般女子及女學生庭球選手權大會는 昨一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한바 一般部에 女師姜貞·林惠玉組가 優勝하엿고 女學生部에는 女商의 金玉秀、咸英淑組가 斷然 制霸하엿다

◇女學生部

(準準決勝)

明淑(鄭姬永)	4…1	同(黃手明)
進明(徐廷五 金光彩)	4…1	同德(金貞淑 李在)
同德(朴媛大 李貞姬)	4…1	女二(松尾 福田)
女商(金玉秀 咸英淑)	4…2	明淑(李世龍 鄭福順)

(準決勝)

明淑(鄭姬永 金玉福)	4…0	女商(金王秀 咸英淑)
進明(徐廷五 金榮彩)	4…1	明進(徐廷五 金榮彩)
女商(金玉秀 咸英淑)	6…4	女師(李貞淑 林恩玉)

本社合同庭球大會에서 延期한 事業及學生一行을 마지하야 明三日午後六時부터 本社三層에서 歡迎會를 開催할터이라는데 會費는 五十錢이라하며 多數來參하기를 바란다고한다

龍中對京商無勝負

京城府體育日…龍中對京商野球戰은 一日午後四時十分부터 龍中先攻으로開始한바 九回까지에 九對九同點된後 日沒로 中止되엿는데 今二日午後三時半부터再行하기로되엿다

龍中	260100000	9
京商	000001403	9

明大野球再勝

對早大二回戰에

【東京電話同盟】今秋東京大學野球의 覇權을 左右할早明第二回戰은 明大先勝의뒤를이어 二日午前十一時半부터 神宮球場에서 明大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九對八로明大 再勝하엿다

明大	0300100500	9
早大	2400001100	8

明日의運動

▲陸上=朝新主催 第十六回全朝鮮女子陸上大會·午前九時 京城運動場(觀覽無料)

▲野球=京城府主催 體育日 中等學校野球決勝 午後四時半 京城球場(觀覽無料)

鳳翔生薑乾薑

鳳翔產業組合

全北完州郡鳳東面 電話五番 振替京城二〇〇五八番

린질약

急性慢性男女淋疾에百發百中藥價二圓이모리藥을써도안나신분은꼭服用하시요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濟世堂藥房 振替京城一二一九九番

朝報案內

懸賞尋犬 세파ー드 三歲牝中型大(旧名미리)(灰色)十月一日오후四時頃 逃走하엿슴니다 發見하신분은 金在圓 電話三五〇五 乳牧場所 成歡洞七三ノ一

피아노 個人教授 音樂의趣味가지신분 初步者에對하야도 親切이 指導함 平壤府將宮里一七一(平壤高女前會館越便) 피아노 個人教授院

꼭 낫는다!

肺病必治

無料(內務省衛生局認可の結核に關한文獻과나의全治된自宅治療法을가르처드리고또良藥을無代進呈함)

여러가지藥을먹어도낫지못한人士와 조선藥과조선藥에실증을일으킨사람에게

身熱이나리지안는분 기침이끗치지안는분 밤에식은땀나는분 喘息되는분 咯血되는분 억개가무거운분 不眠症잇는분 每日腹瀉하는분 胃腸이弱한분 頭痛나는분 倦怠症나는분 胸腰痛잇는분 關節炎이잇는분

억울重者勿望 더라症爲 한患도失

第三期患者도念慮마시요 내가나흔것이무엇보다도證據입니다 數年前에無서운肺病에걸이나는世上에흔한療法과與大한金錢을無益하게쓰며有名한先生에게診察을바덧스나죽어들기다림뿐인 直前에나는安心하고잇슬수잇엇슴으로全生命을바처모든療法을硏究하엿슴니다 硏究가成功되지아니하면一時는明日의生命이危殆하든나는드디어二個月後에는 以前보다도健康한身體가되엿슴니다 나에게는 가장 有效한 肺病特效藥其他病잇는에當時의實驗談 藥의選擇法 갈른치료잇 치는法等加濕食料品의 選擇法一切의肺病治療秘訣書를 一一히 懇切叮嚀히無料로 누구에게든지 드립니다 도特殊한 患者에게는 特效良藥을無代로드림니다 肺病、肋膜、肺炎、加答兒로苦生하 시는분은 이글을보시게된것이무엇보다 多幸입니다 하로의遲延이 百年의後悔가되기前에이新聞名(朝鮮日報)을記入하야 一時라도速히 肺病全快法無料送付하라고써서 奉仕하고잇는사람입니다 이것도 敎人하기爲하야하고잇는것이오니 아모조록安心하시고 間隔하야주시요

本人住所 東京市小石川區東靑柳町二ノ三

松島敎正

윤고약 尹膏藥

手術안코도惡性腫毒과 骨髓에기괴든어렵고, 오래된瘡毒을잘낫게함

大膏用 普通用 京城府長橋町 製造本舖 慈祥局 振替口座京城三一三番 各藥房에도잇슴

京城鍾路 綿絲布 現金問屋 時勢表進呈 秋冬用新柄品 新入荷具備 時勢絶對低廉 地方人士歡迎

東順德 電話光化門 三六〇〇 三二二三 振替京城一四一九四番

新入會員大募集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第五·六學年學科講義

今秋特典

此際普通科新入生에게는 特典으로 其次號一冊을 無代로 配付하며 兩科를通하야 誠實繼續者에게는 其學年末에 相當한講義錄一冊을 代賞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半減함

高等科 一冊十錢 一年 卒業

普通科 一冊五十錢 一個年 卒業 (速修隨意)

學期無時 見本講義錄附內容 時無代進呈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 振替京城八九五番

本會의特徵 一、簡易明瞭 二、入學時期無關 三、無代進呈 一、個人指導 ...

우리朝鮮人에게는 本位의中等講義錄이 朝鮮이必要한것이 없어서 他學科가 比하야 이만큼學費에 입도이 적게하야 왓다

惡性感氣 神奇하게 擊退

定價 廿錢 卅錢 五十錢 一圓

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祝論山邑制實施

論山邑 電話六番

朝鮮精米株式會社 論山支店 支店長 林田久仁男 電話一五番

論山驛前 主任 金在龍 忠南墓地標石工場

論山穀物商組合

時計、寶石、印章、名刺、門標、印材販賣 Y·S 日新堂 主 周東國

昭和精米所 主任 金啓洪 電話六六番

論山驛前 尹夔炳 電話七五番

忠南論山 會頭 裵榮春

朝鮮麵子株式會社 論山支店 電話五九番

忠南土木請負業事務所 主任 任福淳

論山繁榮會 會長 梶原菊造

洋品雜貨 文化用品 既成服 論山和信連鎖店 東元商會 電話一〇一番

論山大和壽常小學校 學務委員 曺星煥

論山醫友會 横田醫院 横田一郞 電話五八番 天誠堂病院 郭海鳳 電話一五番 至誠醫院 金憲植 電話一八番

論山榮町 金東順精米所

論山本町 綢緞布木 信一商會 主任 金誠培

湖南線論山本社支局長兼記者 徐琦淳 總務 林義喆

論山廣信商會 主任 李正永

論山 綢緞布木商店

論山 夔 ...

論山榮町 梁仁煥精米所

論山 和一堂大藥房 主任 裵國煥

論山本町 和洋菓子 風月堂

發展元山의樞軸인 商漁港擴張論再燃

漁港은水振의建議案을基礎로 當局, 目下愼重研究中

【元山】발전원산의 이대추축(二大樞軸)인원산상항(商港)과 어항(漁港)의 확장및그시설의 개선확대는 원산의발전상 하로라도 유예를 허치안는 당면문제가 되어잇서서 부민의여론의초점이되어 잇는데 지난봄에 원산수산진흥회에서는 명일의 원산어항을 검토하고저 사계의권위자를 모아서 수차토의한결과 현재의 어항을 포하천(浦下川)좌안에서 기설방파제에 이르는 배면일대로 확장하는동시 기설방파제를 증설으로 폭오십미돌로확대하야 어선을계류하며 이곳에 전용철도를 부설하고 또 항내는 기피 삼미돌로 준설하야 어선 정박에 지장이 업게 하며 일변 두남리 암 일대를 매축하야 운동장 기타 수산물 가공장을 집중케 할 근본방침을 결정하야 부(府)기타 요로에 건의안을 제출하엿는데 원산부에서는 그동안 전연문제 삼지안코 조사연구중인 모양이다 그리고 이 어항과 아울러상항 원산의 생명선인한구의 시설확대에 대하야서도 벌써 지난 봄 부회시에 약간토의 되엿거니와 부당국에서는이제 반문제를 이번 새로 설치된 원산부세조사회에 부의심의케하야 결정적 의견서를 작성하야 부회에 계출할모양이다.

當初의貨扱目標는 十三年前旣突破

元山商港擴張은猶豫不許

원산항은 이상적량항임에 반하야 그시설은 너무 빈약에기우러저서 량항(良港)의 가치를 도리어 상실하게끔 되여잇서서 식자간에는 벌서부터 장래할원산의비약에 비추어 그시설의확대를 패하야온지 오래다 지금 원산항의 시설이라는것은 애당초에 이삼만돈의 화물처리를목표로한것이나 충취(沖取)기타여러방법으로써 약삼십만돈을 처리하여가는중으로 이최대한의삽십만돈은 벌써 소화원년에 돌파하얏다 그후 다소 신축은잇섯스나 작년도만보더라도세관구내의 화물취급도수는 삼십오만돈에 달하얏나 이와가티 금일에 잇서서도일본내지로가는 금광석,세멘트,석탄등의 대량화물이 밀려들면 그것의 륙속이 곤난한터이니장차평원선이 전통되어 연선 및 배후지의 무진장한 지상,지하의 자원이 개발되여 원산항에 집중하게되고 아울러 중만등지로 갈 상품이 이곳으로 집중하게 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현재의 빈약한 시설로는 도저히 그처리가 어려울것이니 지금부터그 시설을 하지안는다면 원산항세 발전에 일대 치명적인 영향이 올것이라하야 일반부민은 당국의태도를 주목하고잇는데 더욱이 원산의상용지도기관인 상공회의소가 모체가되여 이운동의 전개를 활발히하기를 갈망하고 잇는중이다

施政記念式擧行

【金谷】전곡에서는 시월일일조선시정기념일(朝鮮施政記念日)을 당하야 오전여덟시정각에 전곡소학교(全谷小學校)광장에서 관민유지다수 참렬리에 엄숙히국가(君が代)의합창을비롯하야 천교장(泉校長)의기념식사가잇슨다음 황거요배(皇居遙拜)를 청숙히마치고신면장(申面長)의 발성으로 만세삼창이잇슨후 기념식을엄숙하게 거행하엿다

金章鎬君 高試에合格

【東京】본적을 평남강서군반석면반오리(平南江西郡班石面班五里)에둔 김장호(金章鎬)(二七)군은 금년도 고문시험사법과(高文試驗司法科)에 무난히 우수한성적으로 합격하얏다 군은 일찌기 평양사범학교(平師)를 졸업한후 교원생활과 평양상공회의소에취직하야도 엇섯스나 결혼의봄을 들고 금향부하야 동경(東京)한 이래 원래가빈하야 그간고학을 하면서 오늘의영예를 엇게된것은 실로중에의하한 결정이라한다 아직독신인군은 …군은의지와 명석한머리는 군의 순수한인격과 아울러 가장기대하는바가 크다고한다 (寫眞은 金章鎬君)

不義兒를殺害

【全南支社發】전남완도군신지면신리(新里)…의처 조공심(趙公心)(二一)은 정사국(鄭仕國)과 정을 통하야 지내든바 남편이 … 일신되여 … 불의의씨를 분만하게 되엿는데 그산모는 세상사람의 … 그간부인 정사국에게 … 살해하야 … 하얏다한다

大邱行政區域擴張 祝賀式盛大擧行

一日大邱公會堂에서

【慶北支社發】시생대구의 새출발!이기럼할대구부행정구역확장식은 예정과가티 시월일일 성대히 거행되엿다 대구신구부민은 조조부터 이를축복하기위하야 거리에넘치고잇섯다 오전열시 고시(古市)부윤이하신구직원 부회의원 면협의원기타각관계자사백여명 참렬하에 대구신사(大邱神社)에서 부세확장 보고제(報告祭)를거행하고 뒤이어 열한시반 공회당(公會堂)대홀에서 상택(上瀧)도지사이하 관민천여명 참석하에 축하식(祝賀式)이거행되엿다 전변(田邊)내무부장의 개회선언으로막이열리며 고시(古市)부윤의개회사와 상택(上瀧)도지사 원(原)부산부윤 조(趙)달성군수 이등(伊藤)도회의원의 축사가잇슨후 … 축배를들리어 시종만대대구의 전도를축복하엿다고한다

癩患者豪華旅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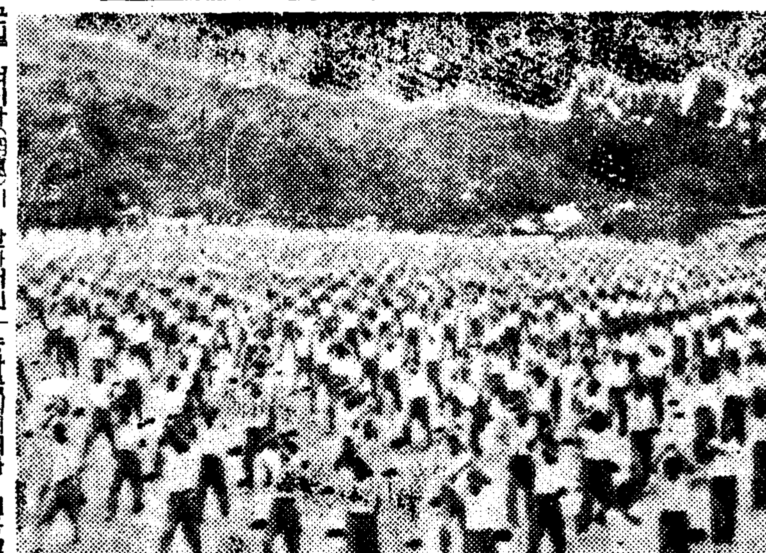
列車를"貸切"警部外一名護送 經費는勿驚五百圓

【平南支社發】말성의 문둥병환자—평양부서성리(西城里)김용섭(金用燮)(二五)외육십팔명의 문둥병(癩病)환자로 각지를방황하는것을 최근발견당하여 수일내로 소록도(小鹿島)로 다려가기로되엿는데 그의여행이야말로호화판으로 이전으로 일여명을 경부보와순사부장이 호송하는데 열차한칸을 독차지하는등 그전비용은 오백원을넘어리라고한다

萬二千餘名動員下 第七回體育大會盛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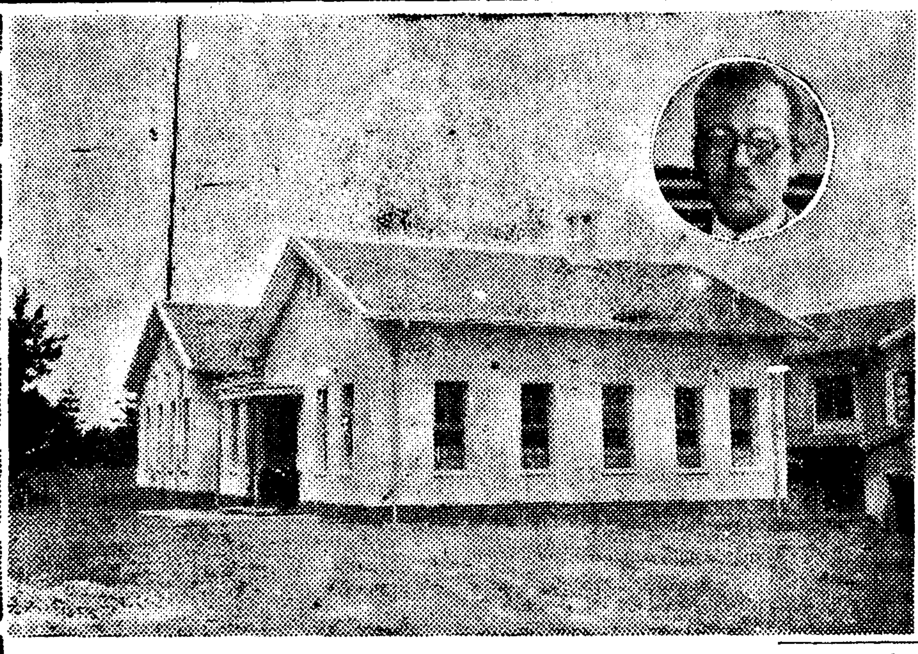
平壤公設運動場에서

【平南支社發】일일시정기렴일오전아홉시부터 평양부내 남녀관공사립중,초등학교삼십개교 일만이천여명생도는 공설운동장에 집합, 제칠회체육대회를 장관중에 개최햇섯다 경례로 식을여러 국기게양 국가합창 동방요배 황국신민서사제창이 잇슨후 시야(矢野)평양부윤의인사가잇슨다음 연합체조가 시작되엿다 육천여명 오년이상초등생도들의 국민보건체조에서 시작하여 사천여명 남자중등교생도의 건국체조(建國體操)남자초등생도이천명의 황국신민체조 여자중등학교 이천여명의 국민보건체조가 전개되여 집단적율동미(集團的律動美)는 스탠드를 메운대관중을 황홀케하엿다 (寫眞은 男女生徒들의 集團體操一場面)



平康郡腦炎患者 十五名中死亡七

【平康】각지에 전염병이 발생하야 그예방에 노력하는 이때에평강군내에는 기면성뇌염(嗜眠性腦炎) 환자가 발생하야 당국에서 응급히 … 예방에 전력을 다하야 요지(要地)에 … 소독되여 일반은 다소안심하고 잇다하며 군내발생 환자수는 십오명이엿는데 사망자칠명, 전치자, 사명, 현환자사명이라한다



裡里放送局 開局式盛大

三百餘名官民出席裡

【裡里】이리방송국의 개국식은 기보한바와 가티 시월일일 오전아홉시 수발식(修祓式)을 방송국 방송실에서 성대히 거행하고 동오시부터 이리농림학교강당(裡里農林學校講堂)에서 남총독대리 체신국공무과장 좌좌목인(佐佐木仁)씨 전북도지사손영목(孫永穆)씨 조선방송협회장 토사성실(土師盛實)씨이하 관민 삼백여명출석하여 성대히 식전을 거행하고 동세시이십분부터 동방송국구내에서가음의미강흥가 준 성연에 들어갓다

裡里放送局陣容

이리방송국의직원은방송부와업무과(業務課)기술과(技術課)의 두가지로 난우워 업무과는 일반서무회계(庶務會計)외에 매일의방송실시 청취계약(聽取契約)과 가입자(加入者)의권유모집 수신기취부(受信機取付)고장기수선(故障修繕)등의사―비스 라듸오상담(相談)기타사무로 분장되고 기술과는 방송기기(放送機器)의 조작운전(操作運轉)무선중계수신(無線中繼受信)잡음조사(雜音調査)등의 일반기술에관한사항을분담하고잇다 직원은국장(局長)이하현재십삼명으로서그수요한자는다음과갓다 ▲局長 別所義博▲業務課長 橋本文次郎▲庶務係 朱鎬錫▲會計係 辛慶石▲放送係 田邊二郎 同 井上正 同 李啓先▲相談係 高公達外六人▲普及係 崔鼎得外二人 ▲集金係 李完洙▲技術課長 須藤隆外係員八人 (寫眞은 裡里放送局全景 圓內는 同局長別所義博氏)

山淸에旱魃

【丹城】산청지방(山淸地方)에는 근일 벼이삭(稻穗)이 말라서 인심이 흉흉하다함은 기보하얏거니와 설상가상으로 한발(旱魃)이 또 한달동안이나 계속하야 무 배추가 남은마르기 시작하야 만일일주일만더 이모양으로 가면 채근(菜根)조차 면키어려우리라고한다

全北에甘雨沛然 旱魃騷動遂解消

【全北支社發】전북지방에 한발이 오래동안 계속되여 야채등 원예작물(園藝作物)의 피해는할 할수업고 전주상수도도 급수제한(給水制限)까지 되엿든것은 본보 기보 한바어니와 초초향양 한 하늘만 처다보며 날이가면 갈수록 전도민이 한숨을 태우고 잇던중 시월일일 오전부터 나리기시작한 비는 오후다섯시부터 갑자기 패연하게 쏘다지기 시작하엿는데 전주측후소(全州測候所)에 우량을 아러보면 오후여섯시현재 사"미리"에 불과하나 아므로 계속하야 쏘다지고 잇는편으로 채소 기타 농작물의피해를 면하고 수원지고갈의 위기를 피하게되리라하야 일반은 기뻐하고잇다한다

照明彈

◇정주정정(定州淨亭)에서는 우지엇기에 게 동(銅)사용을허가한다고◇ 그래야할것이 법령의 취지가 무러대노코 제한하는것은 아니니까 내고장의 특산은 기리기리 보존하세 ◇재령(載寧)에잇는 명신여자부(明新女子部)가 그동안 명암선상(明暗線上)에서 부침(浮沈)하든니 정(鄭) 안(安)양씨의 제휴로 교사신축을물론, 북원하야재단도 완성된다고 ◇등등중 밧가우일 이때의 따님들 다함께 기뻐하세

라디오프로그람

十月二日(日曜)

◇午後六時 兒童劇『人形』 童心會
◇同六時一五分 修養講話 作叫指導 朴興珉 佛專 權相老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 唱劇調 一、短歌萬古江上 二、唱劇調 沈淸歌中奕打鈴 金昌龍 鼓手 丁元燮
◇同八時一五分 歌詞 一、春眠曲 二、竹枝詞 唱 金楊紅 大笒 金永壽 杖鼓 金一宇
◇同八時四五分(東) 管絃樂合奏 一、序曲第八콩크作曲 二、晩秋 만넨오作曲 가、夕陽 나、아베마리아 다、라작마당의舞踊會 三、나데지아 마치 옷키作曲 東京放送管絃樂團 指揮 內木淸次
◇同九時五分 野談 申鼎言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豫報 明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부터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三日(月曜)

◇午前七時二〇分(城) 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松茸스푸」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氣象) 하모니카合奏 全日本하―모니카聯盟밴드
◇午後〇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毛絲編物』(一) 高等技藝學院 裵祥明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童話『바둑을잘두는사람』 尹石重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情報
◇同七時 뉴―스 就職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 …
(二) 京鄕道箏 韓圭復
◇同八時(東) 管絃樂『現代日本音樂』 東京放送交響樂團 指揮 齋藤秀雄
◇同八時三〇分 南道歌謠 一、農夫歌 二、城主푸리 丁南希 吳太石 姜太弘 金世俊 朴錦相 丁元燮 李正業
◇同九時 라디오小說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뉴―스 氣象通報 明日豫報 明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부터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朝鮮語講座 (一四) 宋今璇

四日(火)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
◇正午(東) 하―모카
◇午後六時(東) 이야기
◇同六時一五分(東)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歌謠
◇同七時四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五五分(東) 드라마 古川綠波一座
◇同九時三〇分(大) 歌謠
◇午前七時二〇分(城) 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歌謠曲 (레코―드)
◇午後〇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毛絲編物』(二) 高等技藝學院 裵祥明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東兼音入) 管絃樂 一、山岳戰 二、새파는가가 三、防空演習 東京오―케스트라 指揮 篠田宗吉
◇同六時一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滿洲農業狀況에對하야』(一) 全弼旭
◇同七時 뉴―스 就職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 武士道의精神
◇同八時(大) 吹奏樂 一、行進曲『從軍記者』 二、序曲『夜間飛行』 三、敍情曲『秋의曲』 四、舞踊組曲『코페리아』 大阪市音樂隊 中
◇同八時三〇分 京鄕歌謠 一、農夫歌 二、박타령 三、金剛山打鈴 四、興打鈴 五、青春歌 指揮 林亘 山道 申蘭秀
◇同九時 玄琴散調와伽倻琴併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 나、唱劇調 春香歌中歎中歌 申快童 杖鼓 池龍九
◇同九時三十分 뉴―스解說
◇同九時四十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豫報 明日順序
◇同十時 地方으로부터보내는뉴―스
◇同十時十分 中等朝鮮語講座(七) 李完應

愈々最後?新本十五錢均一

この大特賣 短期二週間限り日延べなし

著者 書名 定價 送料

倉田白峯 日本全國神社物語 三、五〇 14
龜岡保三 大日本王道論 一、五〇 12
岸一太 眞の日本精神 外一書 三、一〇 14
寺島經史 日本民族の科學的優秀性 一、五〇 12
松岡洋右 昭和維新 一、四〇 12
能勢久雄 戰時常識讀本 三、六〇 12
會田勉 資源開發北支讀本 一、〇〇 12
松平道雄 戰爭と科學 一、五〇 12
茂森唯士 風雲滿ソ國境 他 三、三〇 14
小林知治 爆彈北支を語る 他 一、三〇 14
須山卓 亞細亞民族硏究 一、五〇 12
熊田克郎 歐洲政局の不安 一、五〇 12
賀來敏夫 赤裸の支那 一、五〇 12
昇曙夢 謎のロシア 一、五〇 12
稻葉成 農村自救論 外一書 三、〇〇 14
有馬賴寧 農村問題の知識 一、五〇 12
藤岡啓 戰時經濟體制と共產黨 一、五〇 14
塚田一甫 戰時財政と金融統制 一、五〇 14
木村孫八郎 戰時體制下の景氣觀 一、五〇 14
尾山萬次郎 法律問答詳解 三、五〇 12
岩崎法學士 家主地主の權利保護 一、二〇 12
新案意匠 特許の受け方 三、〇〇 12
法醫學と犯罪搜査實話 一、五〇 12
六法ニ依ル 諸願屆書式大成 一、五〇 12
中村法學士 有効な證書書方 三、〇〇 14
政治法律 國民知識寶典 一、五〇 12
岩崎高敏 市町村會議員必携 一、七〇 12
幸田露伴 洗心錄 一、五〇 12
蘆川忠雄 意義ある生活 三、〇〇 12
淺野彌太郎 新しき青年の書 三、〇〇 12
同 希望に輝く道へ 三、〇〇 14
生島隆一 正しき人の道 一、五〇 14
同 青年よ希望持て 一、五〇 12
修養聯盟編 現代青年讀本 一、五〇 12
中井修 人生と成功 三、〇〇 12
生島隆一 青年立志の礎 三、〇〇 12
蘆川忠雄 青年と修養 三、〇〇 12
生島隆一 人になるまで 三、〇〇 12
前波仲子 上に立つ人の書 一、五〇 12
井上如眞 修養自己の爲めに 一、〇〇 12
青年修養會 偉人の青年時代 一、六〇 14
小林鶯里 英傑豐臣秀吉傳 一、一〇 14
同 名將眞田幸村 一、一〇 14
中川修 志士高山彥九郎 一、一〇 14
同 世界偉人言行錄 三、〇〇 12
福田正夫 土の聖者尊德 一、五〇 12
講道館流圖解 柔道修練法 三、五〇 14
フイリツプス・ブルツクス傳 一、一〇 14
岡尾歸心 寫眞說明柔道入門 一、一〇 10
服部 柔道新教範 一、一〇 10
同 劍道新教範 一、一〇 10
辯論硏究會 演說辭典 一、五〇 12
戰時下の式辭挨拶手紙教本 一、五〇 12
五分間式辭と卓上演說 一、三〇 10
道重信教 人生を步み行く道 三、〇〇 14
中野松堂 信仰生活大慈悲 三、〇〇 12
釋宗演 叩けよ開かれん 一、八〇 14
淺野彌太郎 趣味の哲學 三、〇〇 12
間宮英宗 禪とは是ぢや 三、〇〇 12
梶天眞 心靈現象と死後の生活 一、七〇
間宮英宗 裸體の光明 一、五〇 12
藤森順三 生くる者の惱み 一、五〇 12
間宮英宗 碧巖錄講話 一、八〇 14
米樹庵柳莊修養 菜根譚講話 三、〇〇 14
佛教年鑑社 佛教大學講座 一、五〇 12
聖典刊行會 眞宗聖典 一、一〇 12
同 日蓮宗聖典 一、一〇
三井晶史 新譯大品般若經 一、八〇 12
後藤大用 禪の新講話 一、四〇 12
落合寅平他 歎異鈔新講話 一、五〇 12
和田健爾 般若心經講義 一、六〇 12
宮禪祖泰 重澤庵禪師法語集 一、〇〇 12
同 白隱禪師法語集 一、〇〇 12
同 一休禪師法語集 一、〇〇 12
松林一亭 一休の人生觀 一、五〇 14
倉光大晶 仙崖和尚逸話 一、五〇 12
宮島臺洲 禪・禪に生くる 一、五〇 12
二酉洞學人 神樣の戶籍調べ 一、五〇 12
西崎惠峰 佛樣の戶籍調べ 一、五〇 12
清水龍山 日蓮聖人の生涯 一、五〇 14
江守佛嶺 觀音經新釋 一、五〇 12
釜本蕉雄 イエス傳 一、一〇 12
畔上 博もの知り百科事典 三、四〇 14
志田義秀 精解漢和新辭典 一、五〇 9
酒井歡彥 ペン字入實用新辭典 三、五〇 9

馬紘政 書道辭引新辭林 一、五〇 9
植松安 實用いろは新辭典 一、六〇 12
新語研究會 現代常識新語辭典 三、〇〇 9
中山博士 和英併用新式辭典 三、〇〇 9
藤村作 便利重寶辭典 三、五〇 10
土橋文夫 小學全科主要辭典 一、五〇 14
英語入門 世界人名地名辭典 一、五〇 12
岡田實麿 最新英和辭典 一、五〇 9
英語學會 自習英語學び方 一、五〇 12
辻茂雄 英文法の學び方 一、五〇 10
同 英作文の學び方 一、五〇 10
田島實 自修獨逸語入門 一、五〇 12
同 獨逸語文法入門 一、五〇 12
瀧鱗太郎 支那語の學び方 一、五〇 12
堀井仁 滿洲語入門 三、〇〇 14
研數學館 圖解初等數學全書 一、五〇 14
齋藤 商業算術讀本 一、〇〇 12
重要問題 算術學び方解方 一、一〇 12
山崎猛 中學一年の代數 一、五〇 12
同 中學二年の代數 一、五〇 12
宮本軍次 最新珠算の詳解 一、〇〇 14
高木彌三郎 最新速記術講義 一、五〇 14
清水狂風 記憶力增進法 一、一〇 10
橫籠達成 中學講義錄 三、〇〇 14
奈良青年學校 各科目教授訓練 三、五〇 14
奈良金次郎 鐵道旅行案內辭典上 一、六〇 14
同 鐵道旅行案內辭典下 一、六〇 14
瀧本二郎 米國漫遊留學案內 三、六〇 14
油谷吉五郎 巡查看守試驗 六〇 12
松原寬 哲學入門の知識 一、五〇 12
菊地愼太郎 機械製圖入門 一、七〇 12
同 旋盤工作法入門 一、七〇 12

橫田濟明 機械工學の知識 一、三〇 12
田山工學士 圖解一般發動機學 一、三〇 12
石井工學士 化學工業の知識 一、三〇 12
井口泰久 工業數學便覽 三、五〇 14
樋口紋太 化學工藝品製造法 三、〇〇 14
家庭副業 工業品製造法 一、三〇 12
關口工學士 電氣學の知識 一、三〇 12
野口義郎 電氣工學の知識 一、三〇 12
山田工學士 圖解自動車精解 一、五〇 12
大中恒一 ラヂオ原理組立 一、五〇 10
同 ラヂオ受信機製作 一、五〇 12
山本忠興監 やさしいラヂオの組立圖解 一、〇〇 10
增山新平 住宅建築構造圖解 三、五〇 14
同 室內設備構造圖解 三、五〇 14
同 臺所浴室便所設備 三、〇〇 14
建築畫報社 住宅模範設計圖 一、七〇 12
近藤嵐一 建築設計便覽 一、三〇 12
工業研究會 建築學問答 一、〇〇 14
室內の改造と費用の計算 三、五〇 14
戶倉英一郎 土木設計便覽 三、〇〇 14
吉田友三郎 圖解測量便覽 三、〇〇 14
伊藤蔣郎 實地土木測量法 三、〇〇 10
湯川 最新製圖設計法 一、三〇 10
瓜生工學士 鐵筋コンクリト計算法 三、〇〇 10
笹木謙治 新譯古事記 三、〇〇 14
佐藤一三 日本和歌史講義 三、三〇
樋文七 支那文學史講義 三、四〇 14
山口愛川 新譯源氏物語 三、五〇 14
松村英一 新譯萬葉集上 一、八〇 12
同 新譯萬葉集下 一、八〇 12
賴山陽原著 邦文日本外史上 一、七〇 14
同 邦文日本外史中 一、七〇 14
同 邦文日本外史下 一、七〇 14
宮島新三郎 短篇小說新研究 一、三〇 10
谷崎精二 文學の諸問題 一、三〇 12
高木角介 文章作る時これは便利 一、八〇 12
淸川 小說の作り方 一、三〇 9
井土靈山 新漢詩作法 三、〇〇 10
角田音吉 支那女流詩講 一、八〇 14

宮月洲 詩吟じ方 一、〇〇 12
田中佾山 近代詩の作法 一、七〇 12
松村英一 現代短歌辭典 一、七〇 12
淺田空穗 短歌隨見 一、八〇 14
小泉苳三 くさふじ歌集 一、五〇 12
若山牧水 短歌作法 一、〇〇 12
瀧澤曉雨 芭蕉の步んだ道 一、五〇 12
同 一茶俳句研究 一、五〇 12
內藤鳴雪 俳句作方味ひ方 一、五〇 10
高濱虛子 俳句入門 一、五〇 10
藤州鼠骨 俳句歲事記大觀 一、五〇 12
武藤直治 夜明け前の作者 一、五〇 12
井泉水外 旅窓讀本 二册組 三、〇〇 14
佐藤春夫 永井荷風讀本 一、五〇 14
杉浦博士 赤色診療簿 一、五〇 12
太宰施門 研究隨筆 瑪蘭樹 三、〇〇 14
內田百間 百間隨筆 第一回 一、五〇 14
同 百間隨筆 第二回 一、五〇 14
川上 隨筆 寒燈 三、〇〇 12
津輕照子 手かゞみ 一、八〇 12
前田夕暮 散文集 花植物 三、〇〇 14
藤田進一郎 隨筆 時代を步む 一、五〇 14
吉安碧天 隨筆 ひっくり返す 三、〇〇 14
河井醉茗 隨筆 南窓 一、五〇 12
木村錦花 隨筆 三角の雪 一、八〇 14
浦本浙潮 漫筆七部集 三、〇〇 14
上村獨笑 鑑定秘訣 陶磁器考 一、五〇 14
初心者の爲 寫生と挿畫描方 一、五〇 9
十時惟臣 圖案と文字 一、五〇 9
獨立美術 井上長三郎畫集 一、七〇 12
原浩三 日本好色美術史 三、〇〇 14
高村光太郎 續ロダンの言葉 一、〇〇 12

歐州・英泉 浮世繪美人 册二枚一組 四、〇〇 6
圖案研究會 カット圖案文字 三、〇〇 12
國府田範造 工藝百科大圖鑑 二册 一、七〇 14
懸賞入選 工藝意匠圖案集 三、〇〇 12
書畫普及會 趣味の書畫骨董 三、〇〇 14
的場樗溪 古今刀劍便覽 一、五〇 14
美術俱樂部 價格入 刀劍番附 一、〇〇 9
入澤昕江 和漢書道講話 三、〇〇 14
前田默鳳 眞行草字鑑 三、〇〇 10
日下部鳴鶴 行草千字文 二册 一、四〇 12
水谷碧雲 書方註解書道寶典 一、五〇 14
向陽書 二册 楷書草書百字文 一、五〇 10
三形 一組 意匠文字手本 一、五〇 10
池田宙堂 最新書道法帖 一、五〇 10
鈴木香雨 圖解說明 書道通解 三、三〇 14
石川雅山 毛筆ペン書道彀典 三、〇〇 12
井上千圃 五體字崩し辭典 一、五〇 12
香川松石 圖解 三體千字文 三、三〇 14
石川雅山 ペン字高速度上達 一、三〇 12
手紙作百科 書翰文講話文範 三、五〇 14
商業學會 商業書翰文作方 一、五〇 12
澤春洋 ペン青年書翰文 一、四〇 12
同 ペン女子書翰文 一、四〇 12
田宙堂 ペンはがき書方 一、五〇 10
貨幣祭改つた手紙挨拶仕方 三、〇〇 14
一ヶ年應用手紙作方百科辭典 三、五〇 12
山順吉 ペン字入書翰辭典 一、五〇 10
本瀧三 金系と人絹の基礎知識 一、五〇 12
濱野卷平 綿系と綿布の基礎知識 一、五〇 12
松尾五郎 株式相場實戰術 一、五〇 12
富有價證券 公債社債株式投資 一、八〇 14
鈴木 勉投實貯金利殖の書 一、五〇 12

大日本 貨幣の知識 一、八〇
小資本成功 開業案內三百種 一、五〇 12
有望確實な 副業案內三百種 一、五〇 12
加藤美倉 金錢活用安全利殖 一、三〇 10
芳野 圖解簿記と會計知識 一、五〇 12
阜岡 增收農作物一ヶ年 三、五〇 14
一條仁 實驗養兎法 一、三〇 12
伊藤東一 肥料の買方使方 一、五〇 12
安達正博 球根草花作り方 一、五〇 12
加藤行作 果樹小果樹栽培 一、七〇 12
同 和洋蔬菜の栽培 一、七〇 12
同 庭木盆栽と高山草木 一、七〇 12
石井勇義 最新盆栽の仕立方 一、五〇 12
伊庭孝 音樂讀本 三、五〇 12
田邊尙雄 レコード名曲解說 一、五〇 12
宮田東峰 ハモニカ新奏法 一、〇〇 14
富貴庵旭亭 池坊流生花手引 一、五〇 12
作法研究會 禮儀作法一般心得 一、三〇 12
小鳥飼育會 趣味 小鳥の飼方 一、五〇 9
高藤鬼川 趣味釣魚十二ヶ月 一、八〇 12
長田進 スキーの書 二册組 一、八〇 14
綠川洞 寫眞出發秘訣カメラ讀本 一、五〇 14
永田喜 寫眞うつし方入門 一、五〇 12
日附なし 自由寫眞家日記 一、五〇 14
一九三八年 寫眞家日記 一、八〇 14
ジョンス 私のゴルフ 三、〇〇 14
本因坊秀榮 詳解 素人碁鑑上 二、〇〇 12
同 素人碁鑑下 三、〇〇 12
鈴木七段 圍碁死活と定石圖解 一、五〇 12
雁金入段 置碁秘傳 一、五〇 10
土居入段 將棋必勝新定跡 一、八〇 14
佐藤進一 神仙不老强精秘術 一、五〇 12
萩原醫博 家庭療病寶典 三、〇〇 12
堀越龜藏 お灸の新療法 一、五〇 12
藤野鐵治 皇漢藥醫方詳解 三、〇〇 12
貝原益軒 益軒養生訓 一、五〇 12
青木信一 藥用植物治療法 一、五〇 9
齋藤博士 健腦回春法 一、〇〇 10
高良武久 性格的治療法 一、五〇 12
堀內醫博 胃腸療病全書 一、八〇 12
朝岡醫博 神經衰弱療法全書 三、五〇 14
岡本孝 小兒病看護秘訣 三、五〇 12
久保田平治 寫眞瀨戲 性病篇 三、〇〇 14
若き男女と 夫婦性知識 三册組 三、四〇 10
加藤美侖 性愛秘訣 男女衛生 一、三〇 12
長濱・石崎 男女性典 三、〇〇 14
運氣判斷 易學百科全書 一、五〇 14
高島研究會 易の神秘 一、五〇 12
人相研究會 人相の神秘 一、三〇 9
骨相研究會 骨相の神秘 一、三〇 9
岡本榮龍 九星と運命神秘 一、三〇 9
大隈博誠 名前附け方手引 一、五〇 12
龜田壹弘 名は運命を語る 一、五〇 12
前島熊吉 手相學と指紋 一、五〇 14
番相學 墨色運命判斷 三、〇〇 10
松平・本間 地相家相店相方鑑 一、五〇 12
村田天然 墓相と家運研究 一、三〇 12
兒童文庫 童話・兒童劇集 一、〇〇 14
神崎淸 愛兒文藝綠の教室 一、五〇 14
木村毅 土曜日の晚に 一、五〇 14
松原至大 大事な小路 一、五〇 14
植田均 元祿忠臣藏 三、〇〇 14
神田伯山 淸水次郎長外一册 一、六〇 12
栗島狹衣 松五郎捕物帖 一、五〇 14
同 文吉捕物帖 一、五〇 14
邦枝完二 お傳地獄 一、五〇 14
同 お傳情史 一、五〇 14
同 江戶役者 一、五〇 14
同 浮名三味線 一、五〇 14
芥川龍之介 煙草と惡魔 外十四 一、五〇 14
菊池寬 恩讐の彼方に 外 一、五〇 14
井上吉次郎 大小說紅蓮三昧 一、五〇 12
岡本綺堂 お化師匠 外 一、〇〇 12
半七捕物帖 一ツ目小僧 外 一、〇〇 12
岡本綺堂 半鐘の怪 外 一、〇〇 12
半七捕物帖 海坊主 外 一、〇〇 12
岡本綺堂 鷺娘と蛇 外 一、〇〇 12
宇野浩二 短篇集 子の來歷 一、五〇 14
泉一郎譯 强迫の獄文 一、五〇 14
寺田 怪石莊殺人事件 一、八〇 14
丹・いね子 男讀むべからず 一、五〇 12
ゆもあ讀物 百貨店漂流記 一、五〇 12
澁川玄耳 支那獵奇秘話 一、〇〇 14
博潮社 桃色獵奇餘談 一、〇〇 12
同 名探偵捕物實話 一、五〇 12

非常急告

諸物價暴騰의渦卷中에、滿天下의激讚!이原價無視의新本五十錢均一도언제까지繼續되나?、敢然버티여나가더는我社의犧牲奉仕도이것이最後로되지나안흘까。노치지마시오이번이絕好찬스!사실때!!三册以上은代金引換大歡迎、葉書一枚로곳送本함。其他振替小爲替郵券代用도조라。모쪼록送料加算하시고直接東京神田神保町讀書新聞社特賣部로至急注文하시기를바랍니다。

東京神田神保町一ノ三〇
讀書新聞社特賣部
電話神田[illegible] 振替東京[illegible]

學生페ㅣ지

隨想 一默想錄

普專 權錫厚

安全을 求하는마음 그것은老衰心이다. 그것이靑年의 마음에잇다면 卑怯이다. 飛躍! 여기에는 平安이란는것이 潛在할수업다. 그것은 平凡을 意味하는 때문이다.

○

飛躍에 대한憧憬 이것이 靑年氣質일것이고 飛躍하려는 마음이 봄가리 이를때 情熱이생긴다. 情熱! 오오 너는 靑春의 唯一한武器다!

○

엇찌기 情熱을 가저보지못한 어버이들 憤怒어라는 귀향내나는 탈속에서 離脫치 못한채 子息들을 끄러디리려는 어버이들 그리고 이것을 扶養의義務에對한 報酬로 請求하여도 오히려 구테기가티 鈍한 어버이들!

○

朝鮮 靑年들의 苦悶은 여기서비롯한다! 孔孟의 威力업는桎梏에서 勇敢히 反旗를들고 나오지못하는 靑年들아! 轉換期 或은 過渡期라고 斷念의 그늘 속에 숨어버리려는 卑屈한 奴隷根性을 박차버리고 새 힘創造에서 엇는 힘에서 慰安을 차저라!

○

情熱은 靑年의 糧食이다. 情熱을 抹消시키려는 어버이에屈從하고 너이는 무엇을·먹고살려는가. 骸骨 가튼 肉體를 가지고 生活遊戲를 차즈려는가. 情熱을 일흔者 오직 죽엄의 길만이 아페노혀 잇는것을 깨다를 지어다!

○

五百年 꾀속에 흘러오는 썩은 뿌리조아 根性은 벗기 어려운것인가부다! 安逸을 꾀하고 享樂을 爲主하며 弱한者에게 아첨하고 弱한者를 搾取하든 祖上들의 咀呪바든 피ㅣ이것이 내몸속에도 흐르고 잇는가 생각하면 몸서리쳐진다! 아니다 意志의 힘은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 義를 重히 알든 新羅의 나어린 官昌少年, 百濟의 成忠, 高麗의 崔瑩, 鄭圃隱…等의 모든 偉大한行動을 우리는 五百年동안慣習조차 하여보지못했다! 아석은피를 타고난우리가『眞實』을 차저헤메는데 일어나는 너무나 深刻한悲劇!

○

躍進性의 無限 우리는 이것을 肯定할수잇다. 또한 肯定할수잇는 自信을 가저야 할것이다!

自我의完成은 深奧한 問題이다 完成에는無限이잇다. 그러기때문에 躍進性의 無限을 외칠수잇다. 여기에 우리는 全希望을 내어걸고 나아갈수잇는것이다.

○

『아나톨ㅣ호랜스』는말햇다 "ㅣ不安업는 人生은 無價値한人生이다 생각만해도 화가나고 그러치 안흐면 그는安逸히심심하리라!"

甚至於 昆蟲까지도 不安이엿슬것이다! 生活에서 느끼는不安 그것은躍進이다!

ㅣ安逸히 심심하리라ㅣ 이는 심심하다는너보다. 산 송장이다 心臟을 葬事하고 價値업는肉體만이意義업는生을繼續하는것이다.

○

사람은 언제나 孤獨을 지킬수는업다 여기에서 벗은생긴다 가치올고 가치잇슬수잇는 眞正한벗은 人生航路에잇서 오로지 하나인 寶貝이다

○

벗사이에는 多言이 必要치안타 더구나虛飾은 介在할 餘地조차 안는다 마주보고 아젓슬때 默言사이에 오고가는 말들 이래서 비로소 眞正한벗이다 마음과 마음이 락浦햇슬적에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고바들수가 잇는것이다

○

眞正한 友情은 서로의 尊敬에서 일어난다

○

容許할수 업는것은 벗사이의 自尊心이다 自尊心은 相對者를 下視할때 생기는 것이므로이다

○

벗에 對하여 모든것의 自己犧牲 나는여기에서 友情의極致를보다 한마디의말도 업시소와가튼 犧牲을 달게밧는 마음이다

○

『가튼 마음 차저 간절한생각』李海文氏는 노래햇다. 本能以上의 힘을 가지고 차질수잇는것은 가튼마음이다. 암놈이 숫놈을그리워 하는것以上의힘을가지고 그리워할수잇는것은 벗이다. 벗은 나누어진 내몸둥이의한쪼각이기때문이다.

○

八月의太陽보다도 뜨겁게 이러오르는 情熱을가지고 灼熱된 熔鑛爐가티 피어오르는 友情을 어더울수잇다.

○

이러케해서 내靑春設計圖를 그려보고 처볼수잇스려나ㅣ 끗

想華 傀儡夢

中專 申組輔

潑溂秋光에 開窓曉氣淸. 일허진 綠色들춤에 追憶의푸른꿈도 발(簾)사이에서 씻는듯이 압산에로 살어진다. 落花村에 힌비듥기가 사늘한 空氣속에서 뜨거운 가을에 꿈을 白色 배때기에품고 滔박나무가지에 와안는다

淸楚한 들菊花가 아무化裝도 업시 思索의世界를 憧憬하는때 구름우에다 『빠이론』의 戀愛詩를쓰든 時節도 過去라면 나도 제법 큰세음이된다. 慾心은 먹고말새기처럼 살찌고푼때도잇다 情熱의詩篇을 불사른 내마른胛 經우에다 한방울의 물가튼 물방울(潑瀝와돈)이 엇지 宣撫工作을 結作할가부냐. 잇다면 中外를 달니는 썩은 바보의『파라다이스』가 骸骨를 비고 魔女가리 우숨뿐이다. 살엇다는건 賜辱에저나지 안는다 나는죽엇다。

『너는살지안엇느냐』고 高喊처 감定할 男氣와自信을가진親友들은 오라 내가죽은걸그대들에게 보여주리라. 보면 알지안는가, 내가살엇다면 나는眼서靈福車를 타고『드라이부』하면서 有項天의 世界에서 莊子의胡蝶夢을소리처일혹기언만……。

내게는 感傷의 경울이업고 오직 읽어진 綠花園을 創作하는 『펜』이 잇슬뿐이다, 썩은『혀자우리』가 伽藥을 웃길수잇다 黃面老孔인들 웃지안코 백일소냐、ㅡ拈花微笑ㅡ。

◇

瀑布업는 내房이언만한개의世界地圖는잇다 綠水업는 내들窓이건만 細細이를 안들소냐, 그대가 쓰다남은『구지베니』로房化粧을 한다 귀人떠러진 葉錢넘처럼 팔세밧는 文學書籍에倦은 屠殺場을 직히는 可憐한私生子이다 愛人을 미워함이크지언정 사랑하는冊子를 제손으로 집어서 移舍를 시키단이 그것은 親友도알수업는 苦悶이다 그 내가치울엇겟다 C도……안이꾸짓는 누구의말소리가 내귀人가에 들리고 잇다。

孔雀과女性은 美(形式)를 뫼나서 存在할수업다 잇는사람은 업는사람을부보다 K先生님말과가티 눈에는 白紙가 가리운까닭이다。

나는맛지안는時計한아가 잇다 어떠때는 한時間도 어떠때는두時間도빠르다 맛지안는 時間우에서 나는숨지기고잇다 時間그것이 내게주는抑制가크면 나는엇지나 나는이時計를주고 엿과박구어먹울야다가도 문득 잠안오는 어두운밤에 冊床우에서나와말벗을 하자고 쪅각거리는걸 늘生覺고서 부러는맛건 안맛건두어둔다。

時間은秩序업이 나를死의關門으로 誘引헌다『앙드레지ㅣ드』의田園交響樂을 읽고서 冊을집어던졋다 冊에마저서 너머지는 원숭이像 가린눈 가린입 가린귀 너머질지언정 손은아멘다 나도 눈과귀와입을 가리고서 참울수엇는時間을 갓고퍼다『저ㅣ드가쓴 아메리ㅣ는 아메리ㅣ를 幸福하게못만든때의 價値가 잇다』고R이내게 한말은 아직도 모를소리다 寫眞機갓은 人生이다

ㅡ내房에다 꼿을 잇게해주지말나ㅡ

◇

『내가萬一 狂人이라면(事實은 狂人이지만) 그는 돌업는 哲學을 産出할것이다』『形而上學이란 結局 論理不足의極致다』R은 이가티도 말햇다。形而上學이건 形而下學이건 Platon의理念의 世界는 天眞한 幼稚한 兒童에게술 장난감일것이다 그러기에 科學은 作亂군의好奇心에서 發達된다 한쪼각 구름이 西으로가건 東으로 가건 浮雲自體는 本無實이 아닌가。

가장 얄미운사람은 가장 賢明한사람이다。

가장 귀여운사람은『나』를사랑하는사람이다。

떠러진 옷우에다 쓸쓸한表情을 걸치고、太陽은 그때번 人生食을 冷笑햇던가。어린애기의 젖을먹고 우는소리는 이러버린純粹다 地球가 神經衰弱第三期에서 呻吟하면 來日은 재일흘지고 太陽이 잔치를 베풀러다。

侍者야 持茶來하라 나는 오아씨스綠苑에서 二十樓를 늘밧는다 高峰山下에는 實籍이分明타고 高峰은말햇다 傀儡를벗고 꿈이야기를 나는 幾時間이좃것다 (끗)

(詩) 밤의肖像畫

ㅡNS에게ㅡ

朴玘鎬

여보ㅡ되아나!
어서 불을 죽여주서요!
달이 어리 靑綠色으로 蒼白한 밤엔 슬프기도 슬프나마
내 어린魂을 울려노코 영영 떠나간 그女人의肖像畫를 그려야기에……。
하이한 薔薇꼿ㅡ님을 살오든 그날부터 오늘밤은 가슴속 淸明한琉璃窓에 슬픈悲劇의문의가 茂盛해지는 分秒가 아니갓가요 내어린魂은 이따금 비틀기모양하고 소스타처 놀라깨어 잇슴직한 그날에 사랑의暗翳를 追憶하며ㅡ
아주 슬픈行列에 끼어 流線型悲哀에 모주리 壓滅당하는슬픈 運命에 戰慄을 차지햇소 아주 여물지안흔 이어린 靑春에 玻璃窓의 花한 絶壁갓으로 조심조심 흐러가다ㅡ방울이 어느듯 海拔三千피ㅡ트에 無限의海底으로 墜落하는 어린魂의絶句가 얼마나 슬픈感情의 遺言이겟습니까?

여보ㅡ되아나!
어서 불을 죽여 주서시요!
지금 靑綠色으로 陰鬱한 花草와 나무들이 심어잇는 庭園ㅡ그넘엔 흘러간 그女人의 동그스룸한 두억개가 나무그늘에 化石처럼 구더 지려다도다시 行步를 躊躇하는 생각만해도 갑갑한 밤風景이 아주 소란하여 지향업시 흐르고 잇지안습니까?
오오 귀여운 그대의 가느단 손구락이 巡禮치못할 懸劍을 염여주고간 그날부터 내 어린魂은 悲歌를 불럿소。 차운 大理石寢牀의 暗黑에는 언제나 世紀의挽歌를 吊喪하고 恰悧한 赤尾燕씨에 꼬리가 처처 개기는 이소란한 뒤落日엔 불과가을에 哀衰의 館도 어엿소。 오직 아래로 종먹은소리가 都市의 셋재번 交響樂이 되엿소。
恍惚한네온싸인에 가느단손 뜰이 綠과園과 그리고切ㅡ 스팔타의男士들이 호리호리한 허리를 껴안고 돌아가는 이 소란한 季節의 페이브멘트에 安息을 어더오는 오오 이어 面影이 언제나 이저지지 안는 그女人의푸른幻影을 湖畔하며ㅡ黑髮의 거리에서 귀가는데로 마도로스파잎이 그다음엔 좁은업는 벗어되엿다보옹

여보ㅡ되아나!
어서 불을 죽여주시요!
蒼白한달의 처다봇에 걸려 밝은 떨고잇소 내 그리고자하는 肖像畫의 캄바스기둘 달이……。
소란한 거리에는 종먹은소리가 좀 머젓소, 다음엔 杋며리에 惡夢이란놈이 徐音도업시 울어젓지오。
못되내 影像이 하여지는 이瞬間ㅡ肖像畫가 古風스런 悲愁로 屬依할수 잇겟습니까? 故土에도 어느 香夢 賦에 古典的 浪漫風에 서리가마저 紐色한 戲劇에는 白衣大士의 歷畫가 安置되여잇지 안습니까?
巡禮天에서 默禱올드리우고 金色흙이으로 衣裳한 이不出世의 슬픈主人公이 遺影의 背景인 憧憬에 그을 默人치 아니하엿소。 우에는 黃昏빗 薔薇가 싸흔쌍, 五人을어 언제나 斷想들 向하야 삶이 저갈때 그저 나는 조용히 사라질 나그네에 지나지 아니하엿소 이런게 寂寞하고 散漫한 山莊의 어季節이 슬프게도 어저진 道리魂이 차스럽 한밤에 無爲鬱憂에서 울고잇슬 腑臟이 도한 靑春은 낡은것이아니오리가?
그러나 氷河에서 흘러오는 고요한 달비치 浪漫한街로 배울이 그잇슬모신 晝體처럼 肖像畫는 運命的因緣이업는듯에 슬픈일이오나 思慕하는마음에 어찌다 美한그모습이 그려지지도아니할런이 잇사오리가?

여보ㅡ되아나!
어서 불을 죽여주어요!
한밤에 내어린魂이 臺端으로 여길수잇는 동웅을 엄어서 죽여주시서요
古風스런 燭불이 달비즈로 化해젓나? 이 어린魂을 아주 울려노코 간 그女人을 美한그女人을
幻影처이라도 그리기위하야 마자기우리지는 달쌔美한肖像畫를 꼭한번그리기 위하야……。
여보ㅡ되아나!
오오!나의靑春이 다할그날까지 이저지지안는 그女人을위하야、밤의肖像畫를 그리기위하야……。
되아나! 그薔薇스런 침울을 어서죽여주시서요、아주슬픈 밤이외다。

(詩) 山上月夜

培材中學 金裕燮

仙女의얼굴을 모양한 저달은 그립기도하다
달은 潺潺한 물결이되여 흘러오는가?
버이 散亂한마음을 고요히 잠재우누나
×
이곳저곳 풀수풀새여오는 애끈는버레소래
듯기도조라 우수수부는 바람시원도하다
땅우에 撫撫하는 소나무그늘속에 나의외로운 그림자를버롯고 아득한 詩想에잠기나니
나는 눈을쓴채 꿈을 꾸는구나
×
달을보면 왜이리도 마음이구슬프냐?
四方은 고요하고 달비촌 이다지 軟軟하건만……
×
나는 이곳을 떠나지안흐리라
하늘을 우러러보면 너는 幸福의女王이되며
날오란부르고 눈을감으면 아직도 소나무의
그림자 나의 安息處가되여、이가슴에 서리어오니
×
虛荒한이마음 풀길이업서 少女의 발자최가티
솔솔히사라진 하이얀山길을 귀뚜람이소리
발미테 드르며 조심스리 한발두발 내딋는이마음
아! 樂園을찻는것가타야 天主를向해울향으로
발을멈추고 四方을두리번 살피여본다
×
저달미를ㅡ棉花를뜨더논듯 宮女들이
수를노와논듯 두둥실 엷븐 조각구름이
悠悠히흐르고잇나니 지나간 그리운꿈
안타갑기만 하구나
×
오! 너는 이밤이 다하기도前에
또 西山을 너머가겟구나
내才幹만 조와한들 엇지너를 번번히
노쳣슬소냐
×
네가가치한 이밤엔 兇惡하든 山의 범과이리들도
平和한잠을 자고잇슬게다
저글萬物들은 모스눈물꾸기에 이리조용한가
×
沙漠의 渺然한달밤을 追憶하면서ㅡ
寂寞한 이밤엔 나의 悄然을호소하려고
默默히 가슴에 손을얹고 너를
다시한번 우러러보노니
오직 悲哀에저즌 눈물만이
내아들 흐리게하다니ㅡ

첫가을

梨專文科 申辱淳

첫가을

『너이들이 더위까지도 몰고간것가티 서늘해젓다。』

오빠에게서 이런 편지가 왓다

밤사이에 서늘해지고 하늘이놉다라지니까 여름은 꿈에 겨엇던것갓다。서너時間 타고온 車속에서 여름이 가을로 싹 바뀐것가티 校庭에는 아모데나풀이 이발안한 머리갓고 낫에도 버레소리가 빗발나리듯한다。

가을의 소리는 수선수선하다 바람도 수선수선 벌서 기름기를 일흔 나무입도 버레소리도 마음을 질정하지못하고 飄飄해야할 感情이 하도만은것가티서 풀우에 안즈면 풀이 차놀해서 놀란다。풀도 차겁고 사람의살도 생선처럼 차겁고 空氣도말은 冷水갓다。입는날로 호숩군하던적삼옷이 까시시 말리어오르고 도모지 더럽지를 안는다 별안간 熱을 빼아긴 사람의몸도 후전후전 바람을 탄다。머리털이 하도 살랑살랑 매끄러와 문득 손을 대어본다。갓감어말리운것갓다。팔을 쓸어본다 군 脂肪質이 다 것히어뿌수수하다。여름에 태워논 얼굴이 허물벗느라고거치른것도 가을의 擾安이오제그름이다。봄과 여름이 肉的이라면가을은 靈만 잇는 것일게다。냄새조차 봄꽃香氣는 달어서 먹고십고、가을의 香氣는 맛고십다。가을의 香氣는 香그럽되 놉고 청렬하다。그러기에 가을꽃에는 살진것이 하나도 업다。癖에게는 肉이 집스러운탓이。봄은 生命을 주고 가을은 덜득을 준다。

바득바득 무엇에 그러케 구애되엇던고 人間事에 무척 초월해진다。미운사람 고운사람 다 理解해노면 나와 똑가튼 사람들이겟지。『왜 왜』라고 못가肺에 나는 맑아케 다 안다。

스름한살먹은 M이 얼른 늙고십단다。봄엣핀 가을꽃이 애처럽다。더위와 맛씨름하기엔 너무 닯바해서……。그러나 M은 가을의 高雅한 境地를 퍽은 憧憬하는 벗이 엇다。

아츰마다 얼굴에 닷는 冷水의 차놀함이 더해가고 밤에나린 숫한 이슬이 오존일다 마르지못하는 時節이다。나스면 鎌이을 갈아끼운것가티 머렌것이 다아온다。원체 山빗이 저렇게 이엇다 새삼스러 느끼면 고우에 결경이 이렇단구물山이 지우지고、거칠것 업시 새파란 하늘이 놉다。

벌서 季節꽃들이 물러 나묘다。연두비 방송이。가을에는果實도 만치만 첫가을배맛은 너무 맑어 선뜻하다。赤是 葡萄맛이조타。비치 아름답고、포롱포롱 살찐 송이가 아름답다。葡萄와 棗色이라야 한다。

그러나 印象깁기는 밤송이 모양과 감의 빗 그림지모양이겟다。시골집에 가서 新鮮한 밤송이 안에닷긴、밧득가티 매끄럽고、빼족 빼족한 밤알을 끄내여 손에 쥐어보고 그리운 냄새를 마터보고십다。

그 鮮明한 감비출 눈에 삭이고 입술에 차거운觸感을 느끼어보고십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合해노면 우수운 靜物이 되렷다。하나는 東洋畫材料、다른 하나는 西洋畫法이 조켓지。

봄은 잠자리 그림자가 작작스처간다。풀이 여위어 상클상큼하다。

벌레와 덜득의 되푸리 되푸리。피가진 人間의 悲哀。왜自然은 평범한대로 眞理다고、사람은 주어진 自然、感情을 逆行해야 되는가。感情은 왜 理性으로 다사려저야만 善하다는가。

M이 願하는것은 가을이 아니라 겨울일지도 모른다。

밤은 安息하라는 時間 이런다。하루의 終點。

그리고 가을의 眞心은 달속에 잇슬게다。

문단속을 하고 불을 끄면 창살 그림자가 일제히 담요우에 눈다。다드려던 窓에 손을 멈춘채 푸른 빗의 물결속에 서서 먼 祠里의 불빗을 바라본다。

달밤에 울엇다면 그 눈물은 眞珠보다 깨끗햇슬게다。가을달은 파장된、세리맨털을 눈물에 석그라 許諾지 안는다。

물긴後의 고요한 아래층은 달빗과 창살뿐이다。잠들기에 정말 아까운 밤이다。나는 뾰쓰에 파무치도록 깁게 안저서、松林과 언덕을 내다본다。나란이 보고잇슬 검은 숲 푸른 反射、달빗에저즌 먼곳의 불들 먼山을 바라보고 잇노라면 自身도 化石하야진것가태진다。얇은 잠옷이 金屬가리 차겁고 빗갈이 금작스러나는것갓다。정말송옷의 꼬즌함이 그리워진다。

달빗아래 기단 길 그끄테는 이삭아 무거워 두룹해진 들이 잇스리라。그리고 집 사랑스런 수승이

『진순아、누나、언니、아주머니 자근아씨』

집에서 처음 부드러운 목소리들로 불리어질것갓다。(차라리이러케 漠漠한 鄕愁가 그 한짓으로만 마음을 풀어리고십다마는 鄕愁는 슬프고、그리기만 할뿐 아름이 업서、조심。)

落照

監理敎神學校 李禎烈

黎東이는며 힘차게 소사오르던 해님도 이제는 하로의비친이 힘든다는듯이 披勞의微光을 말도업시 江건너 山언덕에 던지고나니

아서라!『오늘도 하루해가 덧업시 저므러고나』ㅡ하는 밤怨嗟에 自嘆이 떠돈다。

나는 江우에 홀로섯다。저가는해볼 한것안과서ㅡ나부끼는 갈대꼬치 夕陽에 빗기며 흔들거림도 가을이 아니고서는 차질수업는 景像이려니와 江언덕에 발을멈춘 어둠에 한거랄(漢江)건너서 부러오는 金風이숫처가는 新鮮味도 또한 가을이 아니면 맛볼수업는 珍味이다。

ㅡ○ㅡ

江기슭에 낫모룰 나루배가 한척 와닷더니 六十도 넘어뵈는 白髮의 늙은배군이 나려와닷줄을 맨다。無心히 갈대바(笆)를 헤치고 물까로 내려갓다。사박사박 발미테 모래가 속삭이며 푸른물이 찰락찰락 뱃기슭을친다。

夕陽빗긴 모래알허나! 물한방울에 그燥音이 내마음에 限업는 神秘를 가저다준다。

『모래한알에서 全世界를 거치른 들판에핀 한떨기꼿에서 宇宙를 찻는다네 주먹에 無限을쥐고 한 刹那의久遠을잡는다ㅡ』

나는 이 William Blake의詩를 머리속에 울으며 酒物主의 無限大한 能力을 다시한번 생각하엿다。

그ㅡ적은 모래하나 뒤는 물방울 하나에서 宇宙의 神秘를 차젓거든 하물며 無邊無際한 穹蒼을엇키려는듯이 떠펴잇는 노울친 저ㅡ구름과 幾百幾千年을 끄님업시 흐르고 잇는 이흐름에 엇서서랴ㅡ……。

나는 여기서 말업시 흐르고 엇는 이江의 沈默에 고개를숙이는 한편 나에게만 그沈默을 깨뜨리고서라도 그過去를 속사겨주엇스면 하는 空想의心思도 가저보앗다。

멀ㅡ리 것차저 도라가는 늙은 뱃군에 뒷모양을 저가는 가을해에 비치어주다 떠잇는 나루人배는 임자도업시 저녁노을에 빗기며 힘업쓸매기가 두워마리 번가러가며 뱃기슭을 놋처간다。

구비처흘르는 漢江水에도 落照의映影은 비취어 金波을이른 江한복판을 조고마한 풍풍선(發動船)하나가 풍풍풍풍 귀여웁게도 물동ㅡ올리고、올라간다。가을의 江邊은 이미 저므러 西天에는 붉으누른빗이 갈득하며 가을의 黃昏은 제법 선선해진다

한낫 閑暇한늙을 이런곳에서만 보내고시펏지는 人間의慾望을 나도 가저보앗다。그러나이도 선잠깬 어린애의 잠고대와가튼 現實性을 일흔 허수아비다。그러나 오늘 하로만이라도 이곳에서 마음의 逍遙를 할수잇섯든것이 限업시 기쁘다。

나는 한나절 散步에 발길을 도리켜 夕陽을 등지고 沙場에 누운 늘신한 내그림자를 지범으며 언덕으로 걸엇다。

ㅡ○ㅡ

하늘도 노코리니와 물도흐렸다 나는 그래도 그곳이 못니저 다시한번 나루께를 도라보니 橋頭에서 다시한번 늣겨지는秋感은나를 感傷의나라로 잇끄러주고야 마렷다。

언덕을 다ㅡ올라왓다。ㅡ

爽快하게 부러오는 江바람은 오래동안 憂鬱에 잠겨잇든 이心情을 깨끗이 씻서준다。

나는 갈바람에 흐트러며 압날의 希望을 頌하는 갈대꼿을 한옷기 꺽거 입에물고서 江언덕을 떠낫다。後日을期約하고

麻浦江에서

【詩】 時計

普成中學 曹王允

時計하나ㅡ
다리는절고
精神은때를隔하여 昏倒하다
……無情主人ㅡ
부럼이 지나치게 亂暴하다!
夕陽의運命의 悲哀을呼訴할제
제命을 자칠하는 指針은 忍耐以上 더 설다

○

마음에업는 삶의하로가쉬임제
沈黙으로變한 生의咀呪는
눈물을압세우고 時計의설움을 떨다
아ㅡ
하염업지空間을 瀑潮하는 마음의憂鬱이여ㅡ
너는ㅡ主人의虐待를 怨望하다못하고
運命의宣言을기다리는 서러운
時計가分明하구나!

學生作品募集

募集規定

全朝鮮男女學生諸君! 諸君이 家庭에서 學園에서 날로 배우며 익혀 가슴에 간직하는 것과 그리고 諸君의 가장 참된 感激의 時間에도 한 그勞力의 結果가 우리文化 建設에 寶石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로 우리의 希望은 크다고 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럼으로 이러한 諸君의 精工과 硏鑽에 多少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諸君에게 提供하기를 아끼지 안는것이다 그래서 本社에서는 이번에 다른紙面을 割愛하고 學生諸君을 爲해서 每週日曜日마다 이것을 벌려놓기로하엿스니 學園에서 배우는 學問과 知識을 자랑 自由롭게 發表하기를 바라는바이다.

應募資格 全朝鮮男女中等學校以上專門大學生

募集原稿 硏究論文、實驗報告、隨筆、紀行、書簡、콩트 (以上四百字原稿紙五枚內外) 新詩、時調、漫畫、學園消息 (以上長短隨意)

賞品 每一人一回分에 對하야 揭載되는대로 薄謝進呈함

其他注意 原稿末尾에 반드시 所屬學校名과 氏名을 明記하되 匿名은 無効로함 언제든지 投稿해도 無妨함

朝鮮日報社學藝部

아침의安國町

中東學校 韓友國

아침의安國町은
學生의바다건만
希望업는孤兒와도갓고나ㅡ
나는
나의希望의불을태워서
아침새空氣를부려주고
나의몸을環境하는피로를태워
族旗鮮明한해가되여
떠도시
그저리그름복그구석까지
빗처워준다
水魚의동모여!
어空氣를마시며
이해빗을마즈며
熱情에불붓어리ㅡ그學校로
두팔을내두를때
발자최마다 希望의꼿치피고
푸른하늘바다우에
기쁨에넘친波濤와가티
勝利의기쁨이나부끼누나!

깁뻐하라

晝愁夜嘆하든 虛弱男子들이여!!

대변듯는回春藥이새로發明됏다

生殖機能障害快速增强劑

キング·オブ·キングス

生理學大家 日獨醫學博士權威 羽太銳治先生創製

本劑의二重藥理作用

시드른꼿이물마저새로핀듯하다 (東京) 橋本美雄

남들의 健康한肉體로 愛情이 똑똑떠러지는듯한 家庭生活을하는것을 볼때마다 나는 왜이와가티 三十未滿의몸으로 早老無力에서 呻吟하고 家庭愛는가하며 恨嘆함을 마지안엇습니다 때마츰 偶然한機會로 貴社의『キングス』를 알게되여 十圓分을注文服用햇든것이 시드른꼿이 물마저새로피듯 갑작이 元氣를엇게되엿사오며 暗黑에서 光明의生活을하게된動機이엿습니다 只今은 아주잘지내갑니다마는 좀더 계속하야服用하겟사오니 十圓分 大瓶을 전과가티또보내주소서。

집붐에넘치는마음은엇절줄몰라 (橫濱) 本間忠光

二十이젓신지난 成年者임에도 不拘하고 어린애라는 놀님을바드며 完全한肉體의所有者가 못되고 쓸쓸히지내오니 이런기막힐일이 또어디잇겟습니가 父母의德으로 金錢에는 不自由치안어 조타는藥은조리써보앗사오며 甚至於무엇무엇하는機械等까지使用治療해보앗스나 何等의效果를못엇고 인제는이대로그만一生을 보내나보다하든것을『キングス』의藥效로 完人이되엇사오니 참으로 깁븜에넘치는마음을 엇지하면조흘지 분간을못하겟습니다 現在는 뗏뗏하게 사내답게 잘지내갑니다 (下略)

튼튼해진몸을잘利用하고지낸다。 (大阪) 濱田利郎

五十줄에드러스더니 전에는그러치안튼 疲勞와倦怠가 甚하고 頭痛과眩暈로苦痛을바더 몸이점점虛弱케되어 이러다가는 한참때인中年에 廢人이되겟지로 悲觀으로 그날그날을 보내든中 新聞廣告를보것이 因緣으로『キングス』를 알게되어 注文服用하고 오늘날 남부럽지안케 튼튼한몸을 잘利用케됫슬뿐더러 또는 모든藥의 세가 씻슨듯이 速히 업서지는데는 藥効의빠른것과適確한것을 참으로 嘆服햇습니다 新春堂藥으로 更生의길을밟게된것을 감사히 역이는바이오며五圓一圓分中瓶 또注文하나이다

最新『性호르몬』學說을 基礎로發明된『キング、オブ、キングス』는 人體에드러가면 그即時로 約十五倍의强作用을하는 雄性動物의生殖腺內分泌素『性호르몬』과 嚴密한藥理로 科學的實驗效果가證明된 强精植物中에서抽出한有效成分만을 合理的으로配劑한後에 兩成分의協力效果가人體內에서 快速히發揮되도록某種의化學藥品을 加入하야 製劑한것이므로 藥理的原理로나 實際的效果에잇서서도 理想的으로 完成의域에到達한 强精回春劑임을 斷言하는바이다 本劑는 純生理學的作用과內分泌學的作用의二重作用이併有하야 前者는 腦神經及全神經組織에作能하므로 頭痛、不眠症、眩暈、盜汗、疲勞、倦怠等을 排除하며 後者는 性的精力官能의中樞인生殖腺機能의障害된것을 强健狀態로回復케함으로 早漏、陰萎、遺精、夢精、陽氣不定等을 短時日에 아모런副作用업시 根本的으로 無力性의體質을 强壯케하는優秀한效能이잇다

御注文은直接本舖로

아직 그러케될 나이가아님에도不拘하고 早老하야 憂鬱히지내다면 自己의一生을 그르치게하는것이오니 조곰이라도 性的缺陷이잇는것을 自覺케되시거든 하로밧비 快速回春되는 本劑로 證明키爲해 本舖에서만 直接販賣하오니 조곰도주저마시고 振替、爲替、또는代金引換便으로注文해주시되 送料는 四十七錢中三十二錢은 本舖에서부담하오니 十五錢만은 加算해주시되 代金引換便注文은 送料十五錢 郵便切手로 先送해주시압소。

藥價 小瓶(一〇〇粒) 二圓 中瓶(二八〇粒) 五圓 大瓶(六〇〇粒) 十圓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春泉堂 (振替東京七七二一番)

余의發明藥으로靑春期를延長식히라 (發明者) 羽太先生談

最近生殖機能障害로因하야性的疾患에煩悶하며 早老虛弱해저憂鬱히지내는者가점점增加됨은참으로 憂慮할事實인바 極端으로 말하자면 現代의靑年、中年初老者는 그全部가 性的障害의症狀이잇다해도過言이아닐줄로밋는다 ●이와가티 大多數의男子가 愁嘆차인몸으로 無元氣無精力한中에生活을하며 不快와焦燥로에그날그날을보내는것을 볼때는더욱이痛嘆不已한다 余는 學究的良心과 專門的立場에서 어에對한 特効劑法을多年間苦心硏究하다가 幸히 動植物『性호르몬』을主成分으로 某種化學藥品의藥理的配合에成功하야 發明創製한것이『キングオブキングス』인바 本劑는 生殖腺內分泌機能을 刺戟旺盛케하며 性神經組織細胞를 活潑强化케하야 心身을 爽快明朗의一途로誘導해 回春의目的을 完全達成케하는 藥効가有하므로 如何한性的障害勿論하고 根本的으로快復케하는 同時에 藥物劑戟을 主眼으로하야 効果를一時的으로만 잇게하는 有害한것과달러吾人全體의靑春期를 延長식혀주는것을責任지고 確言하노라。

牙山支局 取次電話一〇五

優美館 電光 二九五
九月二十八日부터時別大公開! 大衆料金 二十錢 十錢
巨匠 氏監督作品 女を捜せ 마ー스코간스 主演
P.C.L超特作全發聲! 濱田倉樹 エノケンの法界坊 榎本健一氏主演 小笠原章二郎 如月寛多 英百合子 中村是好 助演
P.C.L超特作全發聲! 原作菊池寬氏 演出矢倉茂雄氏 舊戀 竹久千惠子 御田千鶴子 宮野照子 英百合子 大共演
東日大每ニュース班特輯 支那事變戰捷ニュース
次週十月二日부터 白日鬼、花嫁は名明待、夢遊病、鼻唄三羽烏

中央館
讀賣ニュース
大河百々代・山路 主演 眉目麗しく情あり
ユニヴアーサル連續大活劇 バツク·ジョンズ主演 覆面血笑鬼
嵐小路三紋郎·月澄江 主演 御神火春雨傘
一日ヨリ四日マデ四日限リ 階下席十錢均一
每日晝夜二回興行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桃花劇場 京城府桃花町 電話 三二番
十月二日부터四日까지 三日間每日晝夜二回公開 七時十五分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大每ニュース
◇全勝キネマ社作品 魔人群 監督 主演 大河內 ヒビキ龍太郎
◇朝鮮映畫特作 聖邦文字幕 旅(나그네)路 監督 李圭煥氏 鈴木重吉氏 主演 王平 文藝峰
◇パ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深夜のマドンナ 主演 마와ㅣ렌위이 마데ㅣ코 렐탐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話本局) 五六七七番
九月卅日부터 四日間 晝夜二回 七時十五分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廿世紀폭스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テンプル 天使 監督 아㈡ 스토 パスカル氏
◇佛라몽국社超特作品 不良青年 샤ㅣ리 부이크라마크날그렝 主演
◇短篇映畫=回轉線に唄ふ 艦隊
世界信號 次週=密林の王者 迷夢 誘拐團 豫告=曉の翼 鬪牛線 大地 江 金剛山譜 旅路

明治座 松竹キネマ
十月一日二日(休日·日曜日) 二日限 早朝興行上映時間表
ニュース(2) 11·00-11·19 2·53-3·12 6·46-7·12
アルプス 槍騎隊 11·22-12·59 3·15-4·52 7·15-8·52
家庭日記 1·04-2·43 4·55-6·34 8·57 10·36
午前九時開場九時半開演 早朝御優待午前十時まで

黃金座 日活
九月廿九日ヨリ十月五日マデ
1·30 6·20 / 11·00 3·20 7·25 / 5·23 8·25 / 12·00 4·20 9·10 / 12·20 4·40 9·30
(アトラクション=長谷川一郎·金仁淑·菊丸·趙英淑·馬賢淑 出演黃金伴奏)(土曜日曜は三回出演)午前中入場者三十錢均一

東洋劇場
劇團靑春座特別公演
▲中央公演·最終週間▼ 十月一日二日三日間 晝夜二回 晝間一時夜間七時 開演
▲上演藝術座 『春香傳』 五幕八場 唱…金素姬 無敵의配役!
南宮春作『暴風警報』一幕 特別奉仕料金五十錢均一 於府民館
上演 ▲日華協同第一回製作 東洋平和之道 佛ファンドル超特作 『ドンキホーテ』
十月四日밤부터(九日間七時開演) 朝鮮聲樂硏究會大公演 男女名唱總動員 新作期於發表! 朴生南作 歌舞劇『漁村夜話』 四幕六場 소곰아기다리소서!

若草劇場
九月二十九日より十月五日マデ 八〇セン均一
大朝ニュース 7·15 3·50
家庭日記 7·25 4·00 12·35
大每ニュース 8·35 5·10 1·40
シピオネ 8·45 5·20 1·50 10·40
(四回)(三回)(二回)(一回)
東寶映畫大日方傳·月田一郎主演 (早朝割引致シマス)
伊太利映畫 アンニバレ·ニンキ カミロピロット主演
最高ムツソリニ賞獲得巨匠カルミネガローネ監督

第一劇場 電光 一七五五
十月二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每日三回興行 一回十二時二回映
佛SNC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주리앙듸뷔뷔예監督 地の果てを行く 아나베라 장 가방 主演
松竹大船軍事映畫紹超特作 原研吉監督 軍國子守唄 坂本武 笠智衆 飯田蝶子 河內美子 主演
大每ニュース バテーニュース
次週豫告 赤ちゃん、或る女の道 無敵海軍陸戰隊

映畫は日活 偕樂館
三日より特別封切
◇日活超大作 田坂具隆監督 五人の斥候兵 小杉勇 見明凡太郎 伊澤一郎 星ひかる 主演 國際映畫コンクールに數百の外國映畫を退けて世界第一位の名畫
◇コロンビア その夜の眞心 マーナ·ロイ ワーナ·バクスター 主演
◇日活京都特作 海賊船 尾上菊太郎 花井蘭子 主演
朝日、パーニーニュース